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연구

2023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예방·상담전공

김 대 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연구

A Study on Cases of Juvenile Drug Crime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예방·상담전공

김 대 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연구

A Study on Cases of Juvenile Drug Crime

위 논문을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예방·상담전공

김 대 규

김대규의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지 성 (인)

심 사 위 원 김 경 숙 (인)

심 사 위 원 최 천 근 (인)

국 문 초 록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연구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 독 예 방 · 상 담 전 공

김 대 규

마약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은 회사원, 가정주부 등 성인은 물론 10대(19세 이하)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의 대표적 특성인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확산 속도를 볼 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2~‘2021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16,153명 중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450명으로 2.8%의 비율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0년 전인

‘2011년 41명에서 11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검토와 경찰청 마약류 범죄 관련 자료, 대검찰청 마약 범죄백서 등의 통계자료와 연구자가 수사를 담당하였던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중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위반 사건 위주로 선별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공식통계상의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전체 마약류 범죄와 비교해 발생 건수로는 그리 많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약류 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암수성과 중독성을 보면 지금이 청소년 마약류 범죄 대응에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료, 재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과 치료·재활을 우선 목표로 하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대응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 학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교정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일부 마약류 중독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치료와 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공태명 등,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와 환각 등 부작용이 훨씬 심각한 신종마약류 연구를 위해 선행논문 등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예전에 주로 남용되던 마약류와 사건 사례, 본드 등 화학물질 성분의 흡입제 관련 연구로 최근 남용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였던 청소년이 연루된 대표적인 사건 사례 중 경찰청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예외적인 공개 1항,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항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법제처, 2021)에 해당하여 사건 종결 후 경남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당시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정하였다(JTBC, 2021; 연합뉴스 TV, 2021; KBS, 2022; MBC, 2022).

본 연구는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아닌 연구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참여 관찰을 하는 연구자로서 사례를 심층적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사건 관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노출 우려 사항이 있는 수사 관련 정보 사항이 아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마약류 지정 ADHD 치료제’ 등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 중 3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하였으며, 총 108명의 관찰 자료 중 충실도가 높은 19명의 대상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마약류 사용 후 증상과 관련하여 49명의 참여 관찰에서 유의미한 면담자료를 질적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분석의 틀로는 사건 개요, 피의자 특성, 범행 특성, 사전 및 사후 관리로 4개의 영역으로 대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건 개요에는 각 사례의 사건검거 일시, 범행 기간,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 특성으로는 청소년 수, 면담 내용을 분석한 피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력,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범행 특성으로는 범행동기, 투약 장소, 마약류의 종류, 처방 및 유통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여부와 같은 마약류 관련 사전 관리와 재활 현황 같은 사후 관리를 분석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사례 분석 결과, 수사 착수 경위로는 SNS 검색 및 제보, 112 신고 등의 첩보에 의거 경찰의 인지 수사로 진행하였으며, 마약류의 유통 방법

으로는 SNS 광고 및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주로 판매하거나, 청소년들 간에는 SNS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과 사례2의 경우에는 50명 이상 다수의 청소년이 관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사용하는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의 경우 여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장소는 사용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는 청소년 비행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와 비슷하고, ‘디에타민’은 가정에서 부모가 외출하거나 잠든 사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는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동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 사후 예방교육과 관련한 분석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재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이번 사례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흡연과 음주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예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다.

마약류 등 약물남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범죄와 비행 행동에 대하여 기존에는 처벌과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러한 마약류 범죄와 비행 행동에 대하여는 발생 초창기에 재빨리 개입하여 예방하는 철학을 중시하고 있다(최은영 등, 2014; 신동엽, 2014). 즉,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중독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독자가 되기 이전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과 이전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0~30대 젊은 층들을 상대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제

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내실화되고 현실에 맞는 학교 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청소년들 스스로가 마약류 남용과 중독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약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과 마약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안타까운 청소년 마약류 범죄와 마약류 중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주요어】 : 청소년 마약류 범죄,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의료용 마약류, 마약류 치료·재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5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7
제 2 장 청소년에 대한 이해	8
제 1 절 청소년에 대한 정의	8
1) 청소년의 개념	8
2) 청소년기의 범위	9
제 2 절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10
1) 신체 발달	11
2) 인지 발달	11
3) 자아 정체감 발달	13
4) 사회성 발달	15
5) 가족 발달	15
제 3 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	16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16
2) 청소년 문제의 영역	18
3) 다양한 문제 유형	18
제 3 장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23
제 1 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23
1) 심리학적 이론	23
2) 사회학적 이론	26
3) 생물학적 이론	31

제 2 절	청소년 마약류 남용의 유형 및 영향	33
1)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유형	34
2)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영향	36
제 3 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원인	37
1)	개인 환경적 원인	39
2)	사회 환경적 원인	40
3)	문화적 원인	41
4)	심리적 원인	42
5)	생물학적 원인	43
6)	지역적 원인	44
제 4 절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46
1)	약물의 정의	46
2)	약물중독이란	46
3)	유해 약물 오·남용의 개념 정리	47
4)	마약류 중독의 원인	50
5)	마약류 중독의 치료 단계	50
제 5 절	마약류의 정의 및 주요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51
1)	마약류의 정의	51
2)	주요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52
3)	신종마약류의 이해	72
4)	마약류 범죄 관련 규제법률	72
제 4 장	청소년 마약류 범죄 현황	74
제 1 절	국내 마약류 범죄실태 및 분석	74
1)	국내 발생 현황 및 분석	74
2)	최근 발생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성	79
제 2 절	국내 청소년 마약류 범죄실태 및 분석	80
1)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추세	80
2)	청소년 오·남용 의료용 마약류 분석	81
3)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특성	83

제 5 장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	85
제 1 절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85
제 2 절	사례 1(마약성 진통제 판매·투약 사건)	87
제 3 절	사례 2(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사건)	96
제 4 절	사례 3(ADHD 치료제 판매사건)	102
제 5 절	사례 분석 결과	106
제 6 장	정책 제언 및 결론	108
참 고 문 헌	118
ABSTRACT	129

표 목 차

[표 2-1] 청소년의 법률상 연령 기준	10
[표 3-1]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53
[표 3-2] 마약의 분류	54
[표 3-3]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61
[표 3-4] 임시마약류의 분류	70
[표 3-5] 마약류의 특성	71
[표 3-6]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72
[표 3-7]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73
[표 3-8]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73
[표 3-9] 기타 규제 법률	73
[표 4-1] 2012~2021년 국내 전체 마약류 사범 현황	75
[표 4-2] 2012~2021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76
[표 4-3] 2012~2021년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77
[표 4-4] 2012~2021년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78
[표 4-5] 2012~2021년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79
[표 4-6] 2012~2021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80
[표 4-7] 청소년 마약류 사범 범행동기(2016~2020)	81
[표 4-8] 2019~2020년 연령대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83
[표 5-1] 분석자료	86
[표 5-2] 펜타닐 패치 투약 후 느낀 증상	92
[표 5-3] 사례 분석 종합 결과	107

그림 목 차

〈그림 5-1〉 사례 분석 틀	85
------------------------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는 연예인, 재벌가, 방송인 등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에게까지 각종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투약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대(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연루된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 판매 등 마약류와 관련된 각종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 사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16,153명 중 10대(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450명으로 2.8% 비율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0년 전인 ‘2011년 41명에서 11배가 증가하였다. 지난해 전체 18,050명 중 10대 청소년 313명과 비교해 보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0.5% 감소하였으나,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43%나 급증하였다. 그리고 ‘2021년 20대 마약류 사범도 ‘2020년 4,493명 대비 5,077명으로 12%가 증가하였다.

어찌 보면 20대 마약류 사범도 10대 때부터 마약류를 처음 접해 보았을 것으로 추정해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다. 더구나 마약류 범죄는 속성상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되지 못한 범죄라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暗數犯罪)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들의 예상치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끝없는 경쟁을 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갈등과 긴장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과중함까지 받으며 살고 있다(강승호·정은주, 1999; 김정호·이경숙, 2000; 신정자, 2006; 원호택·이민규, 1987; 차태경, 1997).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특히 학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학업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대학입시 경쟁 때문이다. 맹목적인 부모들의 기대감이 주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부적응 대표적인 현상인 자살, 가출, 학교폭력, 마약류 오·남용 등 부적응 행동으로 빠뜨릴 수 있다(정혜경 등, 2003).

이러한 현상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범죄 문제로 인한 심각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행위는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에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결국 국가 전체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 파괴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와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훨씬 심각한 신종마약류 연구를 위해 선행논문 등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예전에 주로 남용되던 마약류와 사건 사례, 본드 등 화학물질 성분의 흡입제 관련 연구로 최근 남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등 신종마약류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의료용 마약류와 신종마약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최근 연구자가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직접 담당하고 수사하였던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사례들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마약류를 접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마약류 중독과 마약류 투약 부작용에 따른 다양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실태분석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마약류 오·남용에 빠지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논문의 구성체계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려 한다.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이 논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여 이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통한 정의를 내려보고,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이론적 배경으로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 그리고 ‘생물학적 이론’을 기술하였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 급증 원인,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주요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 현황을 국내 마약류 범죄실태 및 분석’과 ‘국내 청소년 마약류 범죄실태 및 분석’을 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최근 발생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로 <사례1>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판매·투약 청소년 등 56명 검거”, <사례 2> “마약류 지정 식육역제제 디에타민 판매·투약 청소년 등 63명 검거”, <사례 3> “마약류 지정 ADHD

치료제 콘서트 판매 청소년 검거” 등 청소년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사건을 ‘사건의 개요, 청소년 특성, 투약 장소, 처방·유통 방법, 범행동기, 재활 현황,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여부, 남용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6장 정책 제언 및 결론에서는 제3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 제시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분석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안’과 제5장 ‘최근 발생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과 경찰청, 통계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와 연구자가 경상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근무하면서 직접 담당하였던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한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본바, 청소년들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사전 교육을 통한 철저한 예방을, 엄중한 처벌보다는 세심한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부가 각각이 아닌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청소년 중독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본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다시 말해 가정, 학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교정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학교 내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 마약류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세심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국내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된 자료연구와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 연구만을 가지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험자들,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치료자, 청소년 관련 상담가, 경찰, 검찰 등의 수사 담당자와 교도관, 그리고 마약류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질적, 양적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질적, 양적 조사를 한다면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으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각종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이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2차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치료·재활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 믿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연구자가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으로 7년여간 일하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였던 마약류 범죄 사건 중 다수의 청소년이 연루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범죄 수사 규칙 공보에 관한 사항” 중 예외적인 공개가 가능한 사항인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의 사건에 해당하여 사건 종결 후 경남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당시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인 “2021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판매·투약 사건”(JTBC, 2021; 연합뉴스 TV, 2021)과 “2022년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사건(KBS, 2022; MBC, 2022)”, “2020년 처방받은 마약류 지정 ADHD 치료제 판매사건”을 본 조사 연구의 기초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연구하였다. 다만 사건의 관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 사항이 노출될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후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공개되지 않은 사건 관련 개인정보나 수사 관련 정보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도 하였던 10대 청소년들과 이들의 부모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들에게 처방해주고 제조를 해주었던 의사와 약사들을 조사하고 면담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위험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를 수사관이 아닌 연구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이 논문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10대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론적 접근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각종 문헌 및 각종 연구논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언론 등의 자료 검색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학교 내에서 제대로 된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심지어는 이들을 지도해주어야 할 부모님과 선생님들조차도 마약류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돕고자 경찰청 마약류 범죄 관련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관세청, 형사정책연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립법무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의 공개된 통계와 자료, 인터넷에 공개된 미국 DEA 자료, 각종 인터넷 올라있는 언론자료 등을 참고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한 구체적인 자료들의 정확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등의 대안정책을 연구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연구자가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담당하였던 ‘2021년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판매·투약 사건’과 ‘2022년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사건’, ‘2020년 처방받은 마약류 지정 ADHD 치료제 판매사건’ 등에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108명의 수사 진행 과정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태 분석하였다.

물론 이 3가지의 사건 사례 분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의 실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펜타닐 패치 사건 판매·투약 사건’은 검거된 전체 피의자 56명 중 54명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이러한 분석 자료만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사건은 범행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였지만 63명의 피의자가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펜타닐 패치 사건의 경우도 경남지역 청소년들에게 처음 퍼트린 판매책 혐의로 구속된 10대 청소년이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취득 방법과 투약 방법을 배워와서 한 달여 만에 주변 청소년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조사 당시 확인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 의미가 있는 분석이었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경찰의 사건 종결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담당하는 기소, 재판 등의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처분을 경찰에서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앞서 제시한 3가지 사례의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던 청소년들이 형사사법 절차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공소제기, 판결, 수강명령, 치료 지속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일이 108명 모두에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실태분석에 한계가 있다.

제 2 장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 1 절 청소년에 대한 정의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adolescence)의 어원을 살펴보면 ‘성장한다.’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come to maturity)는 의미의 라틴어 adolescere에서(Nielsen, 1991). 유래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역동적인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김청송, 2019: 22).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므로 청소년기가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이장현 등, 2004).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강조된 개념인 영어 ‘adolescent’와 젊은이 또는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회적·문화적 성격이 강조된 개념인 ‘youth’를 번역한 것으로 우리말에서는 두 단어를 합쳐 ‘청소년’으로 번역되어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어왔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2차 성장과 불균형적인 발달을 경험하면서 아직 사회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성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성장하는 과도기적인 위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주정필 등, 2020: 4).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적 성숙 및 신장과 체중의 증가 등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등 사춘기를 겪게 되며, 이성에 대한 탐색과 관심이 증가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미지도 형성한다.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한다. 피아제(Piaget) 발달이론에 따르면 11세에 형식적 조작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은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져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에릭슨(Erikson)의 발달이론의 단계에 따르면 12~20세는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이라는 다섯 번째

단계로,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이 단계를 인간은 청소년기에 경험한다.

또한 Ausubel은 청소년기를 행동의 미성숙으로 인해 학교, 가정 등 사회기관들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받는 완성된 상황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이를 청소년의 개념으로 보았다(김은숙, 1999: 4).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이란 아동과 성인의 단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육체적, 심리적 발달과정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모경환 등, 2021: 4).

2) 청소년기의 범위

청소년의 개념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 등의 배경으로 인하여 청소년기가 짧거나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청소년기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성인이 되기 위한 전통 의식과 통과의식을 거치면 성인으로 간주하였다(김주원, 2016).

청소년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신체적 특성과 나이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월경이나 사정 시작 등 신체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이는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지만 개인마다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사춘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으로 청소년기가 시작되었다고 쉽게 알 수는 있지만,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소년이 소속된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를 충족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시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이봉철, 1992).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를 정의할 때 보통 생물학적 나이를 사용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나이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흔히 10~20세 사이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세대를 의미한다. 이 시기 청소년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로 하면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

립을 갈망하는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나이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모경환 등, 2021: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나이 범위가 이와 같음에도 이제까지 청소년 관련 정책은 주로 13세~18세 사이의 청소년에 집중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19세~24세 사이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하였다(조혜영 등, 2012).

[표 2-1] 청소년의 법률상 연령 기준

2022. 10. 31. 기준

법률상의 명칭	연령	규정법률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형법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민법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소자	18세 미만	근로기준법

출처: 모경환·이미라·이봉민, P.6

제 2 절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기의 시기를 지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동기 때와는 또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시기이다. 그러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이장현 등, 2004). 또한 아동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심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하혜숙 등, 2021: 57).

1) 신체 발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현저한 신체적 변화는 눈에 띄어 누구나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인 변화가 두드러져 감정의 변화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충동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생리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다(한상철, 2004).

청소년기는 왕성한 성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의 분비 증가로 인해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장급등 현상이 일어난다. 이 시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왕성한 신체적 발육이 일어나는 시기로 제2차 성징들이 발달하게 된다(이장현 등, 2004).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3~14세경에 외부 생식기와 키와 체중이 증가하는 성장급등 현상과 사정(ejaculation) 및 목소리가 변화하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1~12세경에 가슴과 자궁의 발달과 함께 성장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성적인 측면에서도 성인과 같은 생식능력을 갖게 된다(하혜숙 등, 2021: 57).

하지만, 청소년은 이 시기에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신체기능을 갖게 되나, 아직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이장현 등 2004).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개인 간 발달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강한 성적충동으로 인해 불안감, 억압감, 수치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맹용길, 1982). 또한 이제는 어른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자신의 힘을 과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청소년은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Jaffe, 1999).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한다(김청송, 2019).

2) 인지 발달

청소년기가 되면 새로운 인지 특성이 출현하고 정보처리 과정과 기억 전략이 모두 향상되는 등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이상주의 사고, 상위인지(metacognition) 발달, 자아 중심성 현상 등의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

장 피아제(Jeng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있던 아동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형식적 조작기에 접어들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청소년은 가상적인 상황이나 추상적인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로 인해 자유, 종교, 평등, 사랑 등의 추상적 영역으로 관심과 사고의 폭을 점차 넓힌다(하혜숙 등, 2021: 59).

아동기에는 문제 해결에 있어 체계적인 사고와 계획보다는 직접 실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다가,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설을 검증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가능성, 이상의 세계, 논리적으로 맞으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사고가 나타난다(Rice & Dolgin, 2009). 청소년은 이상주의 부모와 이상주의 사회에 대하여 생각하고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기성세대인 성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논리적으로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고 따지면서 기성세대인 부모나 성인들과 갈등을 겪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인지과정이나 사고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의미인 메타인지 혹은 상위인지(metacognition)가 발달한다. 이를 플라벨(Flavel, 1970)은 “자신의 인지에 대한 인지”, 파리스와 린다우어(Paris & Liindauer, 1982)는 “인지 대상 또는 과정에 대한 각성을 지칭하는 상위 수준의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 사고함으로써 자신 사고를 더욱더 잘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자아 중심성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Elkind, 1978). 이는 자신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대하여 구분을 하지 못하는 아동기의 자아중심적 사고와는

다르다. 청소년은 과장된 자의식 또는 자기중심적인 몰입으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이 가진 관심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인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기 초기에 나타났다가 나이가 늘수록 줄어들는데, 청소년기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3) 자아 정체감 발달

에릭슨(Erik H. Erickson, 1968)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 자아는 자율적인 성격 구조이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김정성, 2018).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은 더 정교화되고 일관성 있게 통합된다고 보았고,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발달과업이며, 정체감 요소의 통합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청소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과제라고 강조하였다(소수연 등, 2013).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주기를 8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의 특성에 맞추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고 가정하였다. 그중에서 청소년기인 5단계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의 확립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쉽게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며 사춘기라는 시기를 보내게 된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역할 혼란(confusion)이라는 위기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정체감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의 유명인들을 과잉으로 본받고 따르려고 한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행동에서 볼 수 있다(김정성, 2018).

에릭슨은 정체감을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과 심리·사회적 정체감(psycho social identity)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정체감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심리·사회적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다.

그러나 자아 정체감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갖추어지는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마주하게 될

인간 및 사회관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청소년기에 올바른 정체감을 갖추었느냐가 그 청소년의 사회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허승연, 2015).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제대로 갖추었느냐에 따라 장래 그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 등 각종 범죄와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또한 이런 청소년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다(김정성, 2018).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역할을 합쳐서 자신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탐구하는 노력을 시작하는데 이는 인지발달과 관련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진학, 취업 등 자신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커진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한상철 등, 1995).

마샤(Marcia, 1966, 1980, 1994)는 정체감 지위 이론을 통해 자아 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극복하여 자신의 신념, 직업 등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 자신의 신념과 직업 선택 등에 대한 고민이나 탐색하지 않고 부모나 다른 사람의 가치나 기대 등을 수용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는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그리고 정체감의 위기가 없었는데도 직업 선택이나 신념 등의 문제에 관심도 없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 정체감 위기 상태로서 다양한 역할이나 신념, 행동 등을 탐색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로 분류하였다. 이는 개인이 정체감 형성을 위해 개인의 위기(crisis) 경험 여부, 의사결정 후 관여(commitment) 여부의 두 가지 조합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하혜숙 등, 2021: 60-61).

4) 사회성 발달

청소년은 아동을 지나면서 부모 등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친구 또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은 증가한다(최윤미 등, 1998).

이 시기에는 어릴 적 놀이 중심의 친구 관계에서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친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청소년기의 사회관계에서 친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친구 관계일 것이다(Savin Williams & Berndt, 1990). 따라서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에게 또래 집단의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해진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 부모나 형제와의 수직적인 대인관계보다는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런 수평적 관계를 통해 사회기술을 습득하고 인지적, 정서적 지지를 형성하고 발달시킨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친구의 조언을 따르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장미경 등, 2014).

청소년기의 중요한 또래 관계의 기능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있지만(Brown, 1990; Mendelson & Aboud, 1999)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사춘기 시기에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지원과 안정감을 얻는다. 친구는 칭찬과 존중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가치와 규범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발달시켜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나 학교에서 배우는 이상의 정보를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서 제공받아 습득을 한다(하혜숙 등, 2021: 62~63).

5) 가족 발달

청소년들이 아동기에서 성장하면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서발달과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elsky, 1981; Bronfenbrenner, 1979). 그리고 청소년

년기에는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사회적 기대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의 형태로 변화한다.

청소년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지만,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모와의 갈등도 커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정서적 의존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와 청소년은 서로 타협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장미경 등, 2014) 학업 문제, 친구 문제, 귀가 시간 등의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자율성 욕구가 커지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 내에서 성취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양육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발달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고 다양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하혜숙 등, 2021: 64-65).

제 3 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청소년들의 문제인 범죄와 일탈 등에 대하여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남용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이 형성되는 과정의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흡입이나 투약 등 남용하는 행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2차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박성수, 2017; 유찬우·김근향, 2014; 윤민우, 2012; 조아미, 2011; 박영숙, 2006).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제들은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발달 시기와는 다르게 모두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문제란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일탈행위, 범죄, 청소년 비행 등 청소년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령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행동을 말한다(차경수 등, 1994).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행동과 규범의 기준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말한다.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도덕적 기준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범죄(crime)’란 법규범 중 대부분 형법을 위반한 일탈행동을 말한다. 형법은 범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확대된 개념이 비행이다.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이란 청소년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Kratcoski & Kratcoski, 2004).

사회학적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탈행동으로 규정되는 유형으로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와 빈도상으로 이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경한 비행’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지위 비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문제’라 하면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 및 법규에서 벗어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만을 다루듯 ‘문제아’를 연상시키며, ‘청소년 비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청소년들이 가진 고민과 문제의식, 욕구 좌절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모경환 등, 2021: 8).

2) 청소년 문제의 영역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부모에 대한 반항·형제간 폭력·가출 등의 가정과 관련된 문제, 학업 부적응·무단결석·학교 폭력·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와 관련된 문제, 유해 약물 오남용·흥기 소자·인터넷 사기 범죄·집단 패싸움 등의 사회와 관련된 문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준상(1996)도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인 생물학적·문화적·심리적 자극을 가정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때 결손가정이 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며, 문제행동을 유발하며, 학교에서는 무단결석, 학교 중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SNS 등으로 인한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과 각종 범죄에 연루, 성범죄에 쉽게 노출, 불필요한 소비 성향 증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을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3) 다양한 문제 유형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서로 비슷한 발달적 변화를 겪으며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다.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발표한 청소년의 상담통계를 보면 대인관계 22.4%, 학업 및 진로 문제 20.4%, 정신건강 11.9%, 일탈 및 비행 11.3%, 컴퓨터 및 인터넷 8.37%, 성격 문제 7.7%였다고 한다. ‘2014년도까지는 학업 문제가 2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인관계가 19.1%로 다음 순위였는데, ‘2015년부터 대인관계로 순위가 바뀌었다. 이는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하혜숙 등, 2021: 75).

가) 대인 문제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전 아동기와

는 다르게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줄어들고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성 친구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여 대인관계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이 시기에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 문제는 가족관계, 동성 친구, 이성 친구 문제이다(강차연 등, 2013).

가족관계 문제는 부모와 형제자매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모와의 거리감·소홀·무관심,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 부모의 차별과 비교, 부모의 체벌·구타·학대 등 무서움, 부모와의 대화 부족, 문제 부모, 결손가정, 무능력한 부모에 대한 열등감, 부모에 대한 반항·무시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김창대 등, 1994).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거리감, 사랑과 지지, 대화 부족, 부모 무관심의 현상은 청소년이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toker and Swadi, 1990: 293-297).

이 외에도 맞벌이 부모들의 증가, 핵가족화, 이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혼자서 보내거나 친구들과 시내를 방황하며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점과 자녀와 같이 있어 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용돈을 많이 주며 이를 보상하려는 것도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손경애, 1992: 79).

청소년기에 또래인 친구들과의 관계는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친구가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범행동기에 있어서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가 매우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연히 마약류를 접하게 된 청소년들이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이성식, 2000: 74).

동성 친구 문제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시기·불신·적대감·경쟁·열등감과 친구와의 싸움·다툼·따돌림·소외, 진정한 친구의 부재, 친구와의 갈등 해결 능력 부재, 나쁜 친구들과의 교류 등 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부족한 인간관계 등이 있다(김창대 등, 1994).

이성 친구 문제는 청소년기는 이성과 대한 관심과 성에 대한 호기심

증폭으로 인해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증가한다.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짝사랑, 삼각관계, 실연, 이성 친구가 귀찮아하는 것, 이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이성과의 분리불안, 건전한 이성 교제 방법 미숙, 이러한 이성 교제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이 있다(김창대 등, 1994).

나) 학업 문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학업과 진로라고 말하고 있다.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 고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따른 시험 불안, 성적 저하, 학업에 대한 무관심, 학업 동기의 부족, 공부 잘하는 방법 등의 학업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김동민 등, 2003).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주요한 근거인 학업성적의 저하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한 고민이 심하다. 따라서 학업성적은 심리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성적 저하나 낮은 성적은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김진숙 등, 2003).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치러지는 각종 시험에서의 실패와 성적 결과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과 성적 비교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는 좌절감, 열등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마약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조학래, 1999: 351-386).

성적 저하에 따른 두려움과 성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관련이 있는 시험 불안이 있는 청소년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과 초조를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두통과 소화 불량 등 신체적 증상과 주의력 집중,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공부한 만큼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에 대한 동기도 높고 공부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 데도 학업 능률이 저하되어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청소년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며 좌절을 할 수 있으며, 곁에서 지켜보

고 있는 부모들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주요 원인으로는 집중력 곤란, 비효율적인 공부방법, 잘못된 공부 습관 등이 있다.

학업성적 저하, 시험 불안, 학업 능률 저하 같은 문제는 학업에 대한 동기는 있으나, 심리적 문제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반면, 공부에 대한 회의와 동기의 저하는 학업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경우로 공부가 싫어지고 무의미해지며 학업에 소홀하게 된다. 또한 공부에 대한 과도한 압력이 있으면 반발이나 불건전한 활동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문학, 스포츠, 예술 및 종교활동에 집중하며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다) 진로 문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높은 교육열로 인한 학업에 대한 고민과 대학입시와 진학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진로 문제는 자신을 탐색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의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 판단이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을 경험한다. 자아 정체감에 대한 고민은 진로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김진숙 등(2003)은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현실과 희망의 현저한 괴리, 진로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 진로 선택의 갈등,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무관심과 무계획성, 자기에 대한 이해나 진로 정보 부족, 진학과 취업의 불확실성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유능한 청소년 상담자의 도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을 탐색해 보고 진로 선택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하혜숙 등, 2021: 75).

라) 비행 행동 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 또는 생리적 변화로 인해 내면적 충동과 성인들과는 다른 사회적 규제 또한 매우 커 내면적 충동과 사회적 규제가 크게 대

립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충동적 행동, 반사회적 및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김진숙 등, 2003).

청소년의 비행 행동 문제는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많으며, 가출,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도박 순으로 나타난다(장성화 등, 2012).

청소년의 비행 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위기 상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윤철경 등(2006)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6.2%가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속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김동일 등, 2014).

마) 정신건강 문제

대다수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충동적으로 알려진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서 우울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김진숙 등, 2003).

청소년은 좌절·자포자기, 자신감 상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때, 가족의 질환, 경제적인 불안과 부모와의 불화,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울을 느낀다고 한다(박경애 등, 1999). 청소년이 심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현재 처한 상황과 맞지 않게 심한 우울 증상을 나타내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심한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울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자살의 가능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는 사회공포증, 학교공포증, 시험공포증이 있다(김진숙 등, 2003).

심각한 정신병으로 10대 후반부터 발병이 증가하는 조현병이 있다.

제 3 장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제 1 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에 대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개입과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정책적인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서아, 2018).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오·남용은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빠지게 하는 원인들을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합하여 연구해보면(우룡, 2004),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정신분석 이론, 행동이론, 인지 이론을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하위문화이론을,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유전이론, 생화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원기덕, 2002).

그러나 범죄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에 그 어느 것도 범죄의 원인을 완벽하게 설명해줄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상호연관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범죄의 일부만을 인식하고 있다(김평식 등, 2017).

범죄라는 것은 성격, 수법, 동기, 속성 등 원인에 있어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어 어떠한 특정 범죄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개별적인 범죄의 원인에 관한 관심과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김평식 등, 2018).

1) 심리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심

리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위자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절도, 폭력, 마약류 범죄 등의 각종 문제행동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특성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자아 추구기로서의 정체감 혼미의 현상이라고 보았다(신혜경, 1997).

특히,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자들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독립심, 반항심, 비 동조적 기질, 심리적 부담감, 동기 저하, 일탈행위, 파괴 행위, 우울,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자기 통제력 등의 요소를 들고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 행위는 개인에게 충족되지 않은 다양하고 감성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행동양식이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더 수동적이며 더 자기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성 결함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광재, 1989).

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청소년 문제의 심리학적 접근 중 정신분석이론, 행동이론, 인지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모경환 등 2021: 35).

가) 정신분석 이론(pschoanalytic theory)

정신분석 이론은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인간의 행동과 경험, 인식의 행위는 초기에 발달한 무의식적인 정신작용으로 통제되며, 성격의 구조를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 등 삼중구조로 구분하였다(모경환 등, 2021: 35).

이 이론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원초아(id)에 에너지가 집중될 때 충동적이 되므로, 원초아(id)의 욕구와 자아(ego)의 방어기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투쟁에서 조절된 타협의 결과로 보았다.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서로 조화롭게 기능하는 데 자아와 초자아가 원초아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원초아에 의한 행동이 앞서는 경우 문제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비행은 증상으로서 “외상 경험의 찌꺼기들이고 기억의 상징들”이라고 말했다(박진숙, 2013).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고자 하는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생식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원초아, 자아, 초자아의 세 요소가 조화롭게 기능하지 못하고 상호 파괴적 행동을 함으로써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본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와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미성숙한 반응이라는 것이다(안영철, 2006).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내적·심리적 장애의 표출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자아와 초자아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 못 하는 경우, 에릭슨은 인간의 인생 전반을 여덟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단계의 발달단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아동기의 경험이 청소년기 개인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모경환 등, 2021: 37).

본래 모든 인간은 파괴적, 공격적, 반사회적인 충동이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어린 시절의 훈련이나 부모들의 무관심, 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행위이므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범죄행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현, 199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범죄라는 것은 ‘억압되어 있던 인격적인 경험을 다른 방법인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행동을 치료하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의식에서부터 억압되어 있는 갈등을 풀어 주는 것이다(이장현 등, 2004).

나)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행동이 환경 속에 있는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학습이론이다. 개인의 성격은 타인과의 상

호작용 과정에서 평생동안 형성되며, 정신분석 이론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 행동이론의 접근방식은 경험의 결과인 학습을 바탕으로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간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정적 강화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부적 강화 학습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모경환 등, 2021: 37).

다) 인지 이론(cognitive theory)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가정하며, 어떤 사건이나 신념과 마주할 때 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내재화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즉, 청소년이 외부 세계와의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획득하고 내재화하는지에 따라 문제행동을 유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콜버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범죄자는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일반인에 비해 도덕성 발달단계가 낮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이나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 발달단계에 도달한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인지 이론적 이론은 ‘도덕성과 문제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주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점’,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관한 판단 및 태도가 달리 구성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규정하는 도덕 수준이 상이하므로 같은 행위에도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모경환 등, 2021: 37).

2)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을 이론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가진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와 사회

구조 등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에 맞추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사회 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하위문화이론이 있다. 에릭슨(Erikson)은 심리사회 이론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다(안영철, 2006).

가) 사회학습이론

에릭슨(Erik H. Erickson)은 발달을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는 전 생애를 8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들이 있다고 했다. 사회학습이론은 보상과 처벌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행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보상과 처벌 그리고 특정한 행동에 대한 규범적인 규정이 중요 개념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적합한 가치관과 행동을 학습한 청소년은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살더라도 범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행동 관찰을 통해 문제행동의 방법을 학습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이나 학습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가치 및 태도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다(모경환 등, 2021: 35).

이 이론에 의하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는 행위는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상호 연관된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사회적 분위기 등의 상황 또는 사회구조가 여러 가지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사회 행위로서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게 되는데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이윤로, 2000).

따라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는 행위가 보상을 주는 집단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거나 또는 피하게 되는 정도는 그 행위가 대안적인 행위에 비하여 어느 정도 차별이 있게 강화되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들은 규정으로의 노출, 모델의 모방, 마약류 등 특정한 유해약물의 사용 또는 회피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규범적 규정은 모방을 통한 학습과 관련된 집단 구성원에 의해 사회적으로 강화되어 진다. 이와 같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용이 결정되는 것은 일정 행동에 대한 유해 약물의 강화 효과, 사회적 강화, 사용모델에의 노출, 사용 동료와의 관련을 통한 결합, 동료·부모·법과의 부정적 체계에 달려있다(신운정 등, 2004).

그러므로 이 이론에서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이 직접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즉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자는 집단 상호작용 속에서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이 주는 격려와 보상이 처벌이나 대가보다 훨씬 높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집단이 인습적 지향성을 갖고, 순응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강화하지만, 이탈적 집단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을 강화하여 서로 남용을 묵인하고 격려하며 모방하여지는 상황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원기덕, 2002).

나)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을 허스키(Hirschi)는 뒤르켐(Durkheim)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사회에 대한 연대(bond)가 약해지거나 끊어졌을 때 이탈행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손호중, 1992: 11-12).

사회통제이론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애착이 강할수록, 자신의 미래를 위한 관습적인 활동에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이 많을수록, 관습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통상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마약류 투약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았다(최재용 등 2014).

신송연 등(2013)은 부모들의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중에 부모의 애착이 낮고 부모의 정서적인 지지가 부족할수록 각종 범죄와 일반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이전의 선행연구를 지지했다.

사회통제이론은 ‘사람들은 왜 규범을 어기는가’가 아닌 ‘사람들은 왜 규범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론이다(Hirschi, 1969).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이 개인 또는 집단과 형성하는 관계의 영향력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영향력이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모경환 등, 2021: 35).

인간은 모두가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나 사회적 유대와의 결속력이 약해질 때 일탈적 행동을 하게 된다.

사회통제이론은 다음에 나올 하위문화이론과 유사성이 많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위문화이론은 어떤 집단과정이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 남용의 문제를 ‘왜 그것을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에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왜 그들은 남용하지 않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관습적인 개념에서 일어나는 일탈은 문제로 보지 않고 오락을 목적으로 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과 같은 일탈적인 행동의 유혹을 당연시한다. 사회통제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초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일탈을 하지 않는가?’이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왜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사용하지 않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탈행동과 마찬가지로 사회통제의 부재로 인해 동조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탈행동이나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관습적 제도와의 강한 연결 때문이다. 이 연결이 약해지거나 깨어진다면 사람들은 사회의 규칙을 깨고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남용하는 등의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 즉 우리가 사회적 관습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질수록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윌기덕, 2002).

다) 하위문화이론

범죄학 이론에서 주목하는 하위문화이론은 대체로 범죄 행동을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하고, 조건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신동준, 2018).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적 행동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특성이 있는 하위문화에 의해 사회화되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들을 통틀어서 하위문화이론이라고 한다(박종철, 2013). 이러한 하위문화이론 중에서, 하

층 문화의 성격을 중산층의 지배문화에 대한 반항문화로 보고 이를 범죄 원인으로 지목하는 Albert K. Cohen(1955)의 이론을 비행하위문화 이론이라고 한다(정양석 등, 1996: 5).

코헨(Albert K. Cohen)은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하위문화가 형성된다고 하였다(배종대, 2011: 297).

하위문화이론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특정 사회 집단과의 관계가 개인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을 배우는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다(신윤정 등, 2004).

하위문화이론을 마약류 남용에 최초로 적용하며 연구하였던 ‘벡커(Howard S. Becker)’는 마약류 남용자가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마약류 남용자와 비 남용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남용하고, 경험하게 되는가?’에 있었다. 벡커(Howard S. Becker)가 연구한 모델에 의하면 마약류에 중독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의 투약을 통해 추구하려는 쾌락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마약류를 투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의 투약을 통해 추구하려는 효과는 미묘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느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약류 투약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마약류의 투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셋째,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을 즐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 투약 시 느껴지는 그 기분 자체로는 본래 쾌락적인 것만은 아니다. 불안정하고, 불쾌하고, 방향감각이 없고,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하다고 한다. 따라서 마약류 투약 시 자신의 몸에 나타나고 있는 느낌을 즐기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마약류 투약할 때 따라오는 느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과정을 ‘벡커(Howard S. Becker)’는 ‘집단에

사용자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마약류 남용의 부정적인 느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마약류를 남용하기 위해서는 끊이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급이 가능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위 문화집단에서 새로운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자는 기존의 남용자들로부터 일반 사회가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허용하지 않는 습관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예컨대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자들은 '니코틴이 마리화나보다 더 해롭다', '마리화나 흡연은 주로 이로운 것이 많다', '마리화나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특별히 해롭지 않다' 등의 남용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점들만 배운다.

즉, 마약류를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은 다른 남용자와 함께하면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투약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부'의 관점으로 외부에서 알게 된 부정적 태도를 대처하게 된다. 하위문화 속에서 개인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배우고, 남용하는 과정 중에 더 많은 종류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의 동기를 위한 정당화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다(안영철, 2006).

이 하위문화이론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남용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위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들은 혼자서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을 시작할 수는 없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 또는 또래들이 사용 방법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의 모델을 제공해 주는 사회의 구조가 없이는 청소년의 특성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중독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마약류 등과 같은 유해약물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용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뿐이라는 것이다.

3) 생물학적 이론

생물학적 이론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메커니즘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을 유도하거나 일단 접하게 된 이후에는 남용하게 된다는 주장들이다. 여기에는 유전이론과 생화학적 이론으로 구분되어 진다(한화진, 2011).

가) 유전이론

유전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유전적 요소가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기울어지도록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에 적합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유전자의 합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유전은 여러 요인 중 하나로서 개인의 유전적 구조가 성격 요인 및 환경 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의한 중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신윤정 등, 2004).

예컨대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는 경우,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고통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영향도 다르고, 신체적으로 조정하는 수준도 차이가 있다. 또한 특정 수준의 중독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속적인 사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모두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안영철, 2006).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있어 유전적인 요인을 예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알코올 중독에 주로 초점을 둔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유전 비율은 30~40%대였고 일반 사람들의 비율은 10%인데 반해, 이러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유전의 비율은 당뇨나 위궤양에서 기대되는 것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알코올 중독도 유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 부모가 없는 친구들보다 훨씬 높고 강한 불안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은 강한 정신과적인 장애의 기본 요소이다. 낮은 자기 개념, 불안, 공격 성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알코올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게 만들고, 다른 정신과적인 장애의 발달을 증가시킨다. 더구나 대다수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은 그들 사이에서는 흔한 불안감, 불안정, 우울 등을 없애기 위하여 알코올이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한다고 하였다(강영주, 2014).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과 유전적 연결을 탐구하는 연구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유전적 요인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전은 여러 요인 중 하나로서 보며, 다만 유전적 요인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안영철, 2006).

나) 생화학적 이론

생화학적 이론은 모든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중독상황을 생화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즉, 신체가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신체는 유해약물 분자에 대해 점차 적응하게 되며 인간의 신체는 너무나 적응적이어서 유해약물 분자는 신체적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한화진, 2011).

뇌에서 일어나는 전자과학적 과정은 뇌에서 신경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뇌에 들어간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의해 이 과정은 쉽게 방해받을 수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자가 경험하는 뇌의 화학물질 이상(異常)의 정도는 사용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종류와 사용량, 사용 횟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물질의 구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신윤정 등, 2004).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은 ‘메타볼리즘(신진대사)’의 불균형이란 이론으로, Vincent Doke Marie와 Nyswander라는 의사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중독은 ‘메타볼리즘(신진대사)’에 기인하여 당뇨병 환자와 매우 유사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일단 유해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뇨병환자가 인슐린을 갈망하는 것처럼 유해약물을 ‘갈망’한다는 것이다. 유해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신체적으로 이들을 원하는 ‘메타볼리즘(신진대사)’의 주기가 생겨 유해약물이 기존의 부족한 것을 채우며 정상화 시켜주는 안정제로서 작용한다(안영철, 2006).

제 2 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유형 및 영향

1)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유형

청소년 고유의 성격 특성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모험 추구형(adventure-seeking type)

모험 추구형은 평소 가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과잉적이고 보호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정상적인 모험을 해보지 못해본 청소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가 좌절될 때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복용을 통해 부족한 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장혜수, 2000: 20). 최근에는 마약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범의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SNS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익명성이 뛰어난 SNS 상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으면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모험적 행동을 즐기려는 경우도 많다.

나) 평화 추구형(peace-seeking type)

평화 추구형은 비록 살아온 기간은 짧지만 많은 갈등을 겪어온 청소년은 평소 마음속에 희망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과 공포 등의 고통을 느끼며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을 통해 안정감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들은 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스틸녹스, 졸피뎀 같은 신경안정제, 수면·진정제와 마리화나, 엑스터시 같은 환각제 계열의 마약류를 남용하게 된다(송광선, 2002: 8).

다) 교우관계 추구형(friendship-seeking type)

교우관계 추구형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집단원들과 잘못된 관계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거나, 친구 간에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한 갈망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한다.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에 클럽 등에서 남용되는 환각제인 대마초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이 주로 남용된다(윤흥희, 2004: 23).

라) 힘 추구형(power-seeking type)

힘 추구형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특히,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또래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뛰어난 힘과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을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고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을 통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주로 강력한 각성효과로 인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제공하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코카인 같은 마약류를 남용하게 된다(장혜수, 2000: 21).

마) 미적 감각 추구형(aesthetic-seeking type)

미적 감각 추구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적인 감각을 추구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 특히 미모, 패션 등에 더욱 민감한 청소년들은 미적 감각을 느끼기 위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하며, 마약류를 처음 남용 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남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환각제 계열인 LSD, 마리화나, 메스칼린 같은 마약류를 남용하게 된다(윤홍희, 2004: 24).

바) 성적 추구형(sex-seeking type)

성적 추구형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귀고 싶은 대상자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현실이 아닌 곳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 억압된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적 욕구좌절 등이 있을 때도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성적으로 개방되지 않고 억압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적충동을 더욱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각성효과가 있는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류를 남용한다(장혜수, 2000: 22).

사) 초월명상 추구형(transcendence-seeking type)

초월명상 추구형은 인생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공한 성인들의 삶을 동경하며 닮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을 깨달은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초월한 성공한 인생의 느낌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열망에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남용함으로써 대리 만족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금단증상 등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다(송광선, 2002: 9).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들과 래퍼 등 젊은 음악인들 사이에 불안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간의 과정을 거쳐 마약 성분을 흡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 청소년 마약류 남용의 영향

청소년기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상에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진입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마약류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심리적 및 지적, 정서적 해결 능력, 사회성 형성의 3가지 분야에서 발달 성장의 저해라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장혜수, 2001: 54).

가) 심리적 및 지적 성장 발달의 저해

청소년기는 신체의 급격한 성장 발달과 함께 지적인 부분 중 특히, 추상적 사고영역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평소 마약류를 남용하여 왔던 청소년은 뇌의 중요한 부위인 중추신경계에 특정한 마약류 물질이 영향을 끼쳐 뇌의 주요 기능 결여 및 학습에 있어 부진의 반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수준으로 생각하며 개념화하는 이해 능력이 줄어들어 지적 및 사회성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박성수, 2017: 45).

나) 정서적 해결 능력의 발달 저해

청소년기에 사회적 독립심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갈등과 긴장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마약류 남용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자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 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약류를 남용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약류가 하나의 회피 기제가 되어버린다(장혜수, 2001: 54). 그리고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청소년이 자립과 성숙을 위하여 도전 또는 호기심으로 선택한 마약류 남용이 실제로는 그러한 성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사실이다.

다) 사회성 형성의 발달 저해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 중 자아 정체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발달과업에서 과제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오히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약류를 남용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의 발달 과제가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잊고 일시적으로 잘못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홍윤경, 2008: 15). 마약류 남용은 그 특유의 속성상 발생한 문제를 잊도록 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일시적으로 잘못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의 자아 개념에 대하여 심각한 인식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성장 발달에 저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 3 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원인

마약류 남용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의 남용은 타고난 성향과 함께 부모들의 양육 형태, 학습된 대처유형, 교우관계, 사회적·문화적 구속력 등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류를 장기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성격적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진영호 등, 2000).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의존하게 되는 취약한 성격이라는

특성이 있다(Oyefeso, 1995). 대체적으로 기분이 우울하며 낮은 자기 존중감 때문에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가지려 한다(박상규, 2004).

마약류 남용은 다행감, 고양감, 성적 능력 증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결국은 쾌락 목적으로 남용된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경우 의학적으로 조산 및 기형 유발 가능성과 정서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병과 상관관계로 인해 자살의 가능성도 크며 만성중독증상으로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환청, 망상 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조영환 등, 1991:46-57).

마약류 남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으로는 잘되지 않는 충동 조절로 인해 공격적이고 욕구좌절에 대해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별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갈등이 심한 것 등이 있다(민성길, 1998; Frances & Miller, 1991).

대부분의 마약류 남용자들은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인지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마약류 남용자는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쾌감을 얻기 위해서 마약류를 사용하려고 하며, 죄의식, 고통, 분노, 불안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복잡한 심리 기제를 가지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보편적인 방어기제로서 부정(denial)과 투사(projection)가 사용되고 있다. 마약류 남용자는 흔히들 “나는 결코 중독자가 아니며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내가 마약을 하는 것은 아내 때문이다” 등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박상규, 2004).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남용하는 이유는 각종 마약류를 다양한 계층들이 사용하는 만큼이나 다양하다. 급격한 성장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인과 사회 환경적 원인, 문화적 원인, 심리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지역적 원인 등의 다양한 원인들 간에 복잡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예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백형의, 2014).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경우 환각과 환청, 망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물질 유발성 정신장애가 생길 수 있다(김문수 등, 2006).

1) 개인 환경적 원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급격한 변화에 대한 열등감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분노, 적개심 등이 증가하게 되면 목적달성을 위한 인내력과 능력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도덕적 사고 능력이 남아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성중, 2014).

마약류 남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변수로는 자아 상실감, 비도덕성, 무력감, 숙명적 태도, 고독감, 사회에 대한 불신, 소외감, 안주하려는 속성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남용자들의 경우에는 자존심의 저하, 소속감의 저하와 결여, 대인관계 시 부적절한 의사소통,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려는 능력의 저하, 허영심,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김현수, 1988).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마약류를 남용하는 개인 환경적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가족 요인들이 마약류 남용에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이기정, 2000).

왕성한 성장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 등으로 인하여 갖추어진 낮은 자기 통제력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생활을 접하게 되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범죄에 빠질 우려가 아주 높다. 이러한 마약류 남용의 문제는 가족의 정서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고 개인과 가족의 적응기제로 작용하는 안정 요인이 되기도 한다(정수경, 1996).

마약류 범죄에 빠진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장 시기에 일으키는 각종 일탈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일관된 훈육을 하지 못하고 기분에 따라 훈육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낮은 자기 통제력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생활 습관 등의 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가들의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기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 해보며 직접 행동으로 경험을 해보고 부모님들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마약류 남용에 대한 요인이 있을 때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남용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김혜숙 등, 2002).

그리고 미국 사례를 보면 가정환경과 부모 자녀의 관계와 훈육 방법, 또래의 영향,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영향과 넓은 의미로는 환경적 원인으로 낮은 자아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감을 낮추기 힘들수록, 단순 직업을 선호할수록, 위험 추구를 좋아할수록, 육체적 활동을 선호할수록, 자아중심적일수록, 인내심이 부족할수록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황성현, 2016: 36).

2) 사회 환경적 원인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부모, 형제, 자매, 또래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 호기심이나 친한 친구들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사용하며 권유할 때 담배나 알코올에 손을 대다가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이나 유지를 위하여 마약류 등을 남용하게 되며(김성중, 2014),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은 사회를 해치게 된다(이민희 등, 2004).

또한 하류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이 상류층 밀집 지역보다 마약류에 접근 사용이 높다. 하류 계층 청소년은 빈곤과 국가가 주는

사회적 인프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해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가정에서의 배우자 학대, 자녀 학대, 이혼, 실질 등의 영향이 있다.

하류 계층 밀집 지역의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 평가 절하된 자기정체감,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불법 마약류 사용을 통해 위로받는다(황성현 등, 2016: 44).

그리고 마약류의 남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탈행위로 보거나, 낮은 자기 통제력, 높은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신종마약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사회적 환경적 원인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황성현 등, 2016: 442).

3) 문화적 원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모든 것들이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들 속에서 청소년들은 서로가 공감하고, 애쓰며, 이해해가며 다양한 문화를 통해 자기들만의 사회구조를 만들어간다. 최근은 TV와 대중매체가 다양하게 쏟아내는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홍경아, 2018).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게 되며, 개인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중매체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보고 배워서 상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치 현실세계인 듯 믿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 유익하고 최적화된 문화와 관련된 정보가 가득하므로 자신의 주변에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와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활발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 관련 뉴스는 유명인들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켜 마약류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호기심

을 바탕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사회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이정혁 등, 2018).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쉽게 혼자 있게 되고, 호기심으로 인해 또 다른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기도 한다. 또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따른 유해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잊어버리고 호기심으로 쉽게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접하게 된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족, 친구와 미디어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해 접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약류를 남용하는 모습의 현장을 직접 보거나 관찰한 적이 많이 있을수록 마약류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홍경아, 2018).

4) 심리적 원인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은 또래 집단이나 문화적 배경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행동을 시험해 보고, 같은 또래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수용하려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동료압박(peer pressure)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약류 남용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윤홍희, 2004).

마약류에 의존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특징은 대다수가 의지가 약하고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부모들과 친구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주변에서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또래인 주변 친구들과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취득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쉽게 마약류에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주변에는 마약류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또래와 친구들이 접근하여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마약류를 이미 남용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투약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 마약류 사용에 빠지게 된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주고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다고 잘못 알고 있고 친구들도 권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믿고 사용한다. 이처럼 또래 집단은 마약류의 불법 사용에 대하여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과 또래 집단의 동요와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마약류 남용과 중독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인 마약류 폐해의 대표적인 것으로 호기심에 따른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청소년에게 많은 관심과 마약류 폐해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장현, 2004).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업, 진로, 교우관계 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 우울한 마음 등의 개인적 보상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약류 불법 사용에서 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감은 잊어버리고 마약류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처음 접하고자 할 때의 심리상태를 보면 호기심으로, 친구가 권유해서, 또래 친구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친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괴로움·불안감을 잊기 위해, 부모님·선생님에 대한 반발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잠이 안 와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6).

최근에는 약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신종마약류가 많이 밀반입되어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가 클럽 등에서 유흥과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재미있어서’, ‘클럽에서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파티룸에서 친구들과 즐기기려고’, ‘공부 잘하기 위해’, ‘몸짱이 되기 위해’, 등 목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의 변화된 심리학적 원인을 분석하여 마약류 예방 교육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윤흥희, 2004).

5) 생물학적 원인

아직까지 유해약물 중독의 확실한 유전적 인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지

만, 유해약물 중독에는 유전적 특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윤로, 1997). 유해약물 사용의 유전적 이론에 따르면 중독자들은 타고난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특히 ‘1996년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39.8%가 생리통 증상 완화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나타났다. 또 다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조사에서도 진통제 등 의료용 약물의 남용이 알코올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6).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의료용 약물을 사용한 것 중에는 시험 기간 중에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면제와 일부 각성제 성분의 의료용 약물을 오·남용한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더라도,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김난중, 2016).

한편, 선행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과 연관된 유전인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민성길, 1998).

그러나 외국 선행연구 발표에 의하면 알코올, 마약 등에 대한 생물학적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7) 지역적 원인

사회해체 이론가들은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역사회가 가진 특성과 관련 있다고 보고, 지역에서의 비공식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개인 부적응 측면들의 원인이 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의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

선하는 것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 크게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Hope, 1995; Rosenbaum et al, 1998; 최인섭 등, 1995; 이장현, 2004).

선행논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과 관련하여 검거되는 장소를 살펴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지정된 지역, 빈민 거주 지역, 주택가 인접 야산, 문이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옥상, 오래된 빈 공장, PC방, 오락실, 만화방, 그리고 공원이나 상가의 공중화장실, 서울 한강공원 등의 장소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 유흥가 지역의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 주점, 클럽 등 유흥업소, 주차된 차량 내에서도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투약하다 많이 검거되고 있다(윤홍희, 2004).

특히, 빈민가 지역, 주택가 주변 야산 지역 등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주변 친구들이나 형제들의 본드, 부탄가스 등의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생태학적 입장에서 'SHAW'와 'Mckay'(1993)의 비행지역 이론에 의하면 비행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유흥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빈민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는 각종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 해체 및 붕괴 현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행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박상기 등, 1999).

이렇듯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의 원인에 있어 과거의 연구 결과는 호기심과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의 노출이 많은 빈민 지역 등의 지역적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윤홍희, 2004).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지역의 구별 없이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각종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들은 출입이 용이하고 마약류 사용이 편리한 클럽이나 파티룸, 펜션 같은 장소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제 4 절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1) 약물(drugs)의 정의

약물(drugs)이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의미와 인체에 화학작용 또는 내부 구조와 기능의 일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활성물질(psycho-active substance)에 해당한다(김경빈, 1990). 정신활성 물질은 뇌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람의 기분과 생각, 행동 등을 변화시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약물남용에서 약물의 일반적 의미는 ‘행동이나 정신상태를 바꾸는 화합물 혹은 향정신성 약물’을 지칭한다(smith, 1975: 24).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리 효과에 따라 각성제, 억제제, 환각제로 구분할 수 있다. 유해약물에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LSD, YABA,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류와 본드, 신나, 부탄가스, 니스, 아산화질소 등의 흡입제와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등도 모두 포함된다.

특히 유해약물의 남용은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판단력 장애 등 정신장애와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 발육 장애를 일으키는 등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모경환 등, 2021: 35).

2) 약물 중독(drug addiction)이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바로 잡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약물들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이 직·간접적으로 각종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마약류의 유혹으로 남용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야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최영신, 2004).

우리는 평소 약물을 잘 안다며 과신하는 경향이 있으며, 손쉽게 약물을 접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을 남용하고 중독이 되어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쳐 버려서 더 깊은 약물 의존상태에 빠지게 되고, 급성중독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다가 심각한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약물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만, 자신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만약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오히려 몸과 정신이 상하고 개인적으로 파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여 원래의 좋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독이라는 것은 누구도 되고 싶어서 약물을 남용하지는 않는다.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 등으로 인해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점차 남용하는 약물의 양과 투약 횟수가 많아지면서 중독에 깊게 빠지게 되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하면서 치료를 해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하여 연일 보도를 쏟아 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중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약물오용과 남용, 의존과 중독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주변 사람 모두에게 약물중독의 위험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조성남 등, 2021).

3) 유해약물 오·남용의 개념 정리

우리는 흔히 약물과 관련된 행동들을 표현할 때는 사용(use), 오용(misuse), 남용(abuse), 의존(dependence), 중독(addic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약물 사용 행위를 구분하려면 이런 용어의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마약류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음주나 흡연 등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진정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나 필로폰, 펜타닐, 대마초, 합성 대마 등과 같은 마약류로 남용하는 유해약물을 대체해 간다는 사실을 선행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김상희 등, 1990).

가) 약물 사용(drug use)

약물 사용이라 하는 것은 의사 처방의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약물에 의한 위험성이 낮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물의 본래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는 적고 또한 그 효과가 개인이나 사회에 별로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약물 사용으로 분류한다(조성남 등, 2021).

나) 약물 오용(drug misuse)

약물 오용이라 함은 약물이 치료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이나 상황 면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약물로 인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약물사용과는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약물의 사용과 오용은 사람, 약물, 환경 간에 상호작용의 결과와 관련되어 구분되어지고 그 합법성과는 상관이 없다(최재윤, 2011: 32).

약물 오용은 의도적은 아니지만,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화 불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여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는 경우”이다(조성남 등, 2021).

다) 약물 남용(drug abuse)

약물 남용이란 일반적으로 약물 남용은 법규, 사회적 관습, 의학적 상식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김성이 등, 1989).

원래 약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본래의 치

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원래 약물이 가진 목적이 아니라 부작용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가 약물남용이다. 예를 들면, “접착제인 본드나 연료인 부탄가스, 감기약인 러미나(romilar) 등을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차 약물의 양을 늘려가고, 나중에는 이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존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조성남 등, 2021).

약물 남용은 자아 정체성(ego-identity)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관문(Gateway)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최근 주요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유찬우 등, 2014; 윤민우, 2012; 조아미, 2011; 박영숙, 2006; 박남희, 2005; 김현수 등, 2002; 김남식, 2000; 김소야자 등, 2000).

라) 약물 의존(drug dependence)

약물 의존은 말 그대로 복용하는 약물에 노예가 되어 약물의 복용 없이는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약물을 찾는 상태를 말한다. 의존은 남용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중독이란 보통 의존을 지칭한다.

약물 의존을 진단하는 기준에 있어 ‘DSM-4(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는 약물의 남용과 의존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2013년 개정된 DSM-5’에서는 남용과 의존의 진단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물질사용 장애로만 진단한다(이순민, 2014; 한부식, 2016: 10-11 재인용).

마) 급성중독(intoxication)

급성중독이란 약물이 신체 내에 사라지지 않고 과도하게 존재하여 가벼운 오심이나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과 심지어는 들뜬 기분, 환각, 혼동,

착각 등의 여러 가지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며, 증세가 심하면 혼수상태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마약류 중독의 원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독이 되려고 마약류 물질을 접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기분을 위해서’, ‘운동이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호기심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마약류 물질을 처음 접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 다만 알코올 중독처럼 유전성과 충동성, 욕구 충족의 지연을 못 참는 성격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고 가정환경의 발달 과정상 형성되는 성격 또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역동 심리학적으로는 마약류를 특정 욕구의 대체물로 사용하거나, 불안에 대한 방어, 구강기의 퇴행, 손상된 자아 기능의 반영 등이 될 수 있고, 접근성을 유발하는 미디어 등 대중매체나 인터넷, 친구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환경도 잦은 마약류 중독과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게 빠져드는 중독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시작되지만, 중독이 반복되는 원인은 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독을 뇌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다(조성남 등, 2021: 56).

5) 마약류 중독의 의료적 치료 단계

마약류 중독의 의료적 치료 단계는 해독(detoxication), 동기강화치료(motivation enhancement treatment), 본격적인 치료(main treatment), 재발 예방(relapse prevention)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약류에 취해 있거나 금단증상이 있을 때 신체·정신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해독(detoxication)’ 치료 단계이다. 메스암페타민 같은 각성제 계통의 마약류는 잠을 못 자 예민, 불안, 의심이 많아지고, 심하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모르핀이나 헤로인, 펜타닐 같은 마약은

극심한 신체적 금단증상으로 인해 갑자기 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마약류를 투약 시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독이 되면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된 상태이다(조성남 등, 2021: 67).

두 번째는 마약류 중독자가 해독이 되고 나면, 치료에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강화치료(motivation enhancement treatment)’ 단계이다. 중독자의 대부분은 해독으로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지만, 대다수가 재발하여 고생한다. 마약류 중독자들은 중독질환의 특징인 부정(denial), 합리화(rationalization)를 내세우며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치료 동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중독으로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가정적,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피해 등 다방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찾아 중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약하려는 힘은 더 강해진다(조성남 등, 2021: 67).

세 번째는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본격적인 치료(main treatment)’ 단계이다. 중독자들은 약물에 취해 법과 예의와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책임감 있고 정직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조성남 등, 2021: 68).

네 번째는 ‘재발 예방(relapse prevention)’ 단계이다. 중독은 재발이 많은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 주변의 유혹이나 감정의 변화, 스트레스 등이 생기면 예전의 마약류 투약의 기억이 나타나 갈망이 생겨 재발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과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조성남 등, 2021: 68).

제 5 절 마약류의 정의 및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1) 마약류의 정의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칭하여 마약이라고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나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불리고 있다.

마약(narcotics)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다는 의존성, 시간이 갈수록 약물 사용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생기는 내성, 약물 사용하다 중지하면 온몸에 전지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증상,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유해성 약물로 정의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유해성으로 인해 마약류를 관련 법률로 정해 놓고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등 국내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마약류의 종류 및 특성

가) 마약류의 일반적인 분류

마약류라고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을 과도하게 또는 억제하게 하는 작용을 유도하는 물질 중에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물질을 관련된 법률에 따라 규제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약리 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 환각제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은 경찰청 마약류 관계 법령 해설집,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마약류 자료를 인용하였다(경찰청, 2022; 대검찰청, 202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2).

(1)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 - up 계열

인간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사람을 각성시키는 마약으로 일시적인 쾌감과 들뜬 기분, 도취감, 쾌락적 행복감, 활발한 에너지, 흥분과 불안의 감

정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과량의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여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키며, 뇌의 신경 전달 세포가 손상되는 부작용이 있다. 여기에는 코카인 베이스(코카인, 크랙), 카트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카페인(커피), 니코틴(담배) 등이 있다.

(2) 중추신경 억제제(진정제) - down 계열

각성제와 반대로 인간의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통증 감소, 나른한 행복감, 편안함, 수면, 마취 작용이 있으며, 이성을 마비시켜 평소에 억눌렀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한다. 그러나 호흡 중추와 심장박동 중추까지 억제하여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며,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여기에는 양귀비를 기반으로 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이 있고, 물뿔으로 불리는 GHB, 케타민,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 알코올(술) 등이 있다.

(3) 환각제 - psychedelic 계열

인간의 중추신경을 흥분 또는 억제시켜 환각을 유발시킨다. 일시적으로 청각·시각·후각·미각·촉각 등의 오감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비현실적인 감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뇌 조직의 일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판단력 마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각성제나 억제제보다 신체적 의존성은 낮지만, 정신적 의존성이 높다. 여기에는 대마초, LSD, 아야와스카, 엑스터시(MDMA) 등이 있다.

나)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표 3-1] 마약류의 구체적인 분류

분류		종류
마약류	마약	천연마약, 추출알칼로이드,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관련 법률에 분류)
	대마	대마초, 해시시
임시마약류		1군, 2군

(1) 마약

(가) 개요

마약이란 일반적으로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주요 마약의 분류 현황은 [표 3-2]와 같다.

[표 3-2] 마약의 분류

분류	품명	지정성분 수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옆)	3
추출알칼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 헤로인 등	35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101

※ '2022년 3월 15일 기준 지정성분 수

(나) 주요 마약의 종류

① 천연마약

㉔ 양귀비(楊貴妃, 제2조 제2호 가목)

양귀비는 아열대 및 온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일명 ‘앵속’(opium poppy, 罂粟)이라고 불리는 1년생 식물로서 기원전인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Golden Crescent)’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양귀비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파파베르 숨니페룸(Papaver somniferum L.)’종, ‘파파베르 세티게룸(Papaver setigerum DC.)’종,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종의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편 추출 목적보다 주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서 가정상비약, 동물 치료약 등으로 사용할 목적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어 개화 시기인 매년 5~6월 양귀비 재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귀비 종자 샐러드드레싱, 양귀비 쿠키

등 양귀비를 가공하여 상품화한 마약류 제품군들의 밀반입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㉔ 아편(Opium, 阿片, 제2조 제2호 나목)

아편은 꽃이 지고 난 양귀비의 설익은 열매에 상처를 내어두고 흘러내리는 우윳빛의 액체를 받아 60℃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후 공기 중에 건조한 암갈색의 덩어리로 제조한 생아편, 생아편을 뺀아 가루로 만들고 모르핀의 함유량을 10% 내외로 조절한 의약품 아편, 생아편을 물에 녹여 증발·농축하여 액상으로 만든 흡연용 아편으로 구분되며, 주로 인도·티기·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제조된다. 예로부터 탁월한 진통 효과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응급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지속하면 처음에 느꼈던 약효를 다시 느끼기 위하여 더 많은 흡입을 하게 되어 중독으로 이어진다. 남용하게 되면 식욕과 성욕 성실, 메스꺼움, 구토, 변비, 동공 수축, 호흡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㉕ 코카 잎(Coca, 제2조 제2호 다목)

코카 잎은 법률상 코카 관목인 코카나무의 잎으로 ‘엑고닌’과 ‘코카인’ 성분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코카 잎’을 말한다. 남미지역이 원산지로서 높이가 1~2m 정도이며, 가지는 갈라져 있고 나무 전체의 모양은 둥글다. 잎은 서로 어긋나있고 황색을 띤 녹색이며, 바소꼴(뿔죽한 창 모양) 또는 긴 타원 모양으로 길이는 6cm 정도이다.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몸의 가장 굽은 맥 양쪽에는 줄이 1개씩 있다. 일반적으로 ‘코카(Coca)’라고 하는 것은 ‘코카 관목’의 잎을 말한다. 고대 시대에서도 코카 잎이 사용되었는데, 잉카제국에서 제사장들은 종교의식 중에 최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였고, 일반인들은 일상에서 오는 배고픔과 피로감을 잊기 위해 늘 사용하였다고 한다. 유럽으로는 ‘1532년경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 시 코카 잎이 전해졌고,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코카인 성분이 분리되어 ‘1873년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에서

는 비교적 많이 유통과 남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다.

② 추출 알칼로이드(alkaloid)

㉓ 모르핀(Morphine, 제2조 제2호 라목)

‘파파베르 수니페룸 L’로 제조한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 후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한 알칼로이드(alkaloid)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 ‘1805년 독일 약사 제르튀르너(Fredrick Setürner)가 최초로 아편에서 모르핀을 분리하였고, 그리스 신화에서 꿈의 여신으로 불리는 Morpheus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특별한 냄새는 없으며 맛은 매우 쓰고, 빛을 받게 되면 노랗게 변하여 보통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모르핀은 용액이나 분말 또는 정제 형태로 사용되며, 중독자들은 정맥주사를 사용한다. 과다 투여하면 사망할 수 있다.

모르핀은 뛰어난 진통, 진정, 진해 효과가 있지만,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의 부작용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유발되어 심각한 금단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의료용으로 사용 시에도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한 번 사용에 200mg 이상 투약하는 경우에는 호흡장애를 일으켜 투약자 대부분이 호흡장애로 사망한다.

㉔ 코데인(Codeine, 제2조 제2호 라목)

아편이나 모르핀보다는 적게 함유되었으나, 테바인보다는 많이 함유되어있는 알칼로이드로서 ‘메틸모르핀(Methyl Morphine)’으로도 불린다. ‘1832년 프랑스 약제사인 포비케(Pierre Robiquet)가 최초로 아편에서 분리를 하였는데, 코데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양귀비 열매의 껍질인 생앵속각(poppy head)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코데이아(Kodeia)’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의학적인 진통의 효과는 모르핀의 1/6 정도 수준이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그치게 하는 진해·진정 작용이 탁월하여 코데인(codeine)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한외마약이 감기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코데인은 신체적으로 의존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남용하는 때는 정신

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㉔ 헤로인(Heroine, 제2조 제2호 라목)

마약의 왕으로 불리는 헤로인은 모르핀에 무추초산,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의 물질을 사용하여 모르핀의 구조를 변화시킨 반합성 마약이다.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이라는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된 말로써 1874년 영국에서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1898년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호프만(Felix Hoffmann)이 재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1898년 독일 바이엘사가 진통제로 시판을 하였으나, 심각한 중독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도 전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마약이다. 헤로인은 냄새가 없는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로서 긴장과 분노, 공포 등을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이다. 모르핀을 원료로 하기에 모르핀과 약리의 작용은 유사하나, 모르핀의 10배에 달하는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㉕ 테바인(Thebaine, 제2조 제2호 라목)

파라모르핀(Paramorphine)으로도 불리며, 테바인 자체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의학적으로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옥시모르핀, 날록손, 벤틀리와는 같은 합성물로 전환된다. 화학적으로는 코데인이나 모르핀과 유사하지만 진정 효과보다는 흥분 효과를 강하게 나타낸다. 초기에는 종종 불쾌감, 졸음, 시력 및 생리작용의 감퇴 등을 일으키고, 과도하게 남용하게 되면 오심, 구토 및 호흡 억제에 따른 사망 확률이 높아지며, 의존성과 내성이 생긴다.

㉖ 옥시코돈(Oxycodone, 제2조 제2호 라목)

옥시코돈은 반합성 마약으로 테바인으로부터 합성되어 얻어진다. 효능은 코데인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약효와 의존성은 코데인보다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밀매시장에서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진통제로 유통되는

데 미국 국가마약정보센터(NIDIC)에 의하면 주로 미국 동부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헤로인을 대체하는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강한 중독성을 가졌으며, 대부분의 복용자들은 경구복용을 하지만 일부는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기도 한다.

㉞ 코카인(Cocaine, 제2조 제2호 라목)

코카인은 세계 3대 재배국으로 불리는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코카나무의 잎으로부터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진 도파민의 체내 농도를 높여 쾌감을 일으키는 천연마약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방법은 코점막을 통하여 흡입하는 것이다. 헤로인과 혼합하여 정맥주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흡연하는 경우에 코로 흡입하는 것에 비해 더욱 강한 효과를 느낀다고 하여 마리화나와 섞어 피우기도 한다. 코카인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며 흡입 또는 투약 시 벌레가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메스버그’라는 현상으로 인해 스스로 피부를 긁어, 심한 상처를 내게 되고, 환각에 빠지게 된다. 또한 과다한 양을 흡입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열과 경련이 일어난다. 심할 때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크랙(Crack)은 코카인에 탄산나트륨을 혼합하여 물에 희석한 후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을 시켜 추출한 백색 결정체로서, 기존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나 강하고 중독성 또한 매우 높다. 크랙을 유리관에 넣어서 가열 또는 기포화 하여 흡입한다.

③ 합성마약(synthetic opioides)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마약으로서, 의존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와 유사성에 따라서 ‘메타돈(methadone)계’, ‘페티딘(pethidi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모르핀난

(morphinane)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페티딘계’와 ‘메타돈계’가 가장 많이 남용된다.

㉔ 페티딘(Pethidine, 제2조 제2호 마목)

페티딘은 모르핀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대표적인 합성마약으로서, ‘1939년 독일 웨스트제약(Hoechst) 회사의 O. Eisleb에 의해 최초로 합성된 합성마약이다. 최초 ‘Dolantin’이란 제품명으로 시판되었는데 ‘Demerol’, ‘Pethadel’ 등의 상품명으로 유통되기도 하였고, 현재 알려진 종류는 페티딘, 펜타닐, 디페녹실레이트 등이 있다.

페티딘은 화학적으로 모르핀과는 다르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여 진통의 효과를 주는 측면에서는 모르핀과 유사하다. 진통의 효과 이외에 진정의 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3~6시간 동안에 약효가 지속된다.

㉕ 펜타닐(Fentanyl, 제2조 제2호 마목)

펜타닐은 ‘1959년 벨기에의 화학자이자 ‘얀센제약’ 회사의 창업자인 폴 얀센(Paul Janssen)이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1960년대 정맥주사 마취제 용도로 처음 도입된 합성마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진통제와 마취제 용도로 허가를 받았고,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한다.

펜타닐의 종류로는 캔디 형태로 빨아먹는 ‘트로키제’, 뺨 안쪽으로 녹여 구강 점막으로 흡수하는 ‘박칼정’, 혀 밑에서 녹여서 먹는 ‘설하정’, 피부에 붙이는 ‘패치’,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 ‘주사제’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비마약성 통증제의 효과가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여 과다하게 투여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남용으로 인한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고,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마약으로 여겨지며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중독자 증가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메타돈(Methadone, 제2조 제2호 마목)

메타돈계는 합성마약에는 메타돈과 함께 디피파논(Dipipanone), 아세틸메타돌(Acetylmethadol) 등이 있다. 메타돈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르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 헤스트(Hoechst) 제약이 개발한 합성 마약이다. 그러나 개발을 마친 당시에는 약리 작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1947년 미국에서 진통제(Dolophine)로 도입이 되고 난 이후, 심한 통증의 치료와 대체 마약 용도로서 마약 중독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1965년 우리나라에서는 23개의 제약회사들이 합성마약인 메타돈을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약품들과 혼합하여 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 영양 주사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가 수만 명의 국민들을 중독자로 만든 소위 '메타돈 파동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타돈을 성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

(2) 향정신성의약품

(가) 개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뇌에 있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었으나, 인체에 투여 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있어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대상 물질을 말한다. '2021. 12. 14. 기준으로 전체 291종의 성분으로, '가'목은 LSD·크라토 등 111종, '나'목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44종, '다'목은 바르비탈·펜티조신 등 61종, '라'목은 졸피뎀·GHB 등 75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목에 해당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제, '나'목에 해당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각성제, '다'·'라'목에 해당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억제제에 속하는 것이 많으며, '가'목부터 환각효과 등의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목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다.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현황은 [표 3-3]과 같다.

[표 3-3]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분류	대표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가목	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툼(Kratom),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111	• 의료용 불사용 •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암페타민(Amphetamine),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44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바르비탈(Barbital),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61	• 의료용 사용 •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디아제팜(Diazepam), 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75	• 의료용 사용 •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성분 수는 2017년 83종, 2018년 91종, 2019년 95종, 2020년 98종, 2021.12.14. 기준 111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목부터 환각효과 등의 약효가 강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1, P14, 재구성

(나)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①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법 제2조 제3호 나목)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서 일반적으로 ‘필로폰’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888년 일본 도쿄대학의 의학부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 치료제로 사용되는 ‘마황(麻黃)’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하였고, ‘1941년 대일본제약주식회사(현, 대일본스미모토제약)가 상품명 ‘히로뽕’(영문상품명 Philopon)으로 출시하였다. ‘잠을 쫓아주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를 하였다. 당시 ‘히로뽕’이라는 상품명은 현재까지도 ‘메스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Philopon’은 ‘일하

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Philoponus'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이나 공장노동자들에게 전투 의욕을 위한 정신적인 집중력이나 생산능력의 제고를 위한 육체적인 힘을 증진하게 시켜주는 약물로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은 신체적 의존성은 비교적 약하나,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내성이 높아 빠르게 중독되며, 중독된 사람은 극심한 금단증상을 겪으며, 투여 시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손상되어 이로 인하여 중추신경계가 파괴되어 다양한 증상의 합병증이 유발되고, 과다 투약 시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② MDMA(3,4-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 법 제2조 제3호 나목)

엑스터시(Ecstasy)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MDM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있는 대표적인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914년 독일 화학·제약회사인 머크(Merck)사에서 최초로 합성하여 다이어트 약물로 특허 출원하였으나 효능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70년 미국의 화학자인 알렉산더 쉐긴(Alexander Shugin) 박사가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하려 재합성하였으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하여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유통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 세계적으로 남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MDMA는 메스암페타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3배 정도 강하고 분말 형태도 있지만, 주로 알약 형태로 유통되며, 주사기로 투약하는 메스암페타민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환각이나 흥분 효과는 메스암페타민 못지않은 위험한 마약류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오·남용되고 있다.

복용 시에는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효과로 인해 '포옹 마약(hug drug)'으로도 불린다. 복용 후 20~60분 정도 지나면 입이 마르고 동공도 확대되는 등 극도의 흥분감이 일어나며 3~4시간 약효가 지속된다. 과다 복용 시 대표적인 부작용인 환각, 환청이 나타나고 불안, 초조, 구토,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③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법 제2조 제3호 가목)

엘스디(LSD)는 극소량으로 환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환각물질로 ‘1938년 스위스 화학자 엘버트 호프만(Albert Hofmann)이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 등에서 발견되는 맥각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에르고타민(ergotamine)으로부터 처음 합성한 환각제로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 형태이다. 초기에는 정신병 치료에 실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1960년대 전면 불법화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히피문화, 반전운동과 함께 많이 확산되었다.

주로 우표 같은 형태의 종이에 인쇄하여 이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유통되기도 한다. 소량의 경구투여를 하는 경우에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매우 강력하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남용자들은 약물 사용을 중단한 지 일주일 또는 수년 후에도 환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한다.

④ 날부핀(Nalbuphine, 법 제2조 제3호 라목)

날부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반합성 마약으로 상품명인 ‘누바인’으로 불린다. ‘1990년대 초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한때 중독되었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필로폰 대용 약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피하 주사 시에는 모르핀보다 2.3배, 코데인보다 8.3배에 이르는 강한 진통 효과를 보이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④ 텍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법 제2조 제3호 라목)

텍스트로메토르판은 진정 효과와 해리 효과가 있는 코데인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합성마약이다. 이를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심박수 증

가, 뇌 손상 발작 등으로 황설수설하고 정신장애 호흡 억제 및 혼수에 이르러 사망하기도 한다. 환각작용이 있어 청소년과 가정주부 사이에서 오용과 남용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다른 약품의 복합제로만 사용하고 있다.

⑤ 펜플루라민(Fenfluramine, 법 제2조 제3호 라목)

중국이나 태국 등지에서 보따리장수, 관광객들이 소규모로 밀반입하여 유통하거나 중국에 본사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람편, 섬수, 상주청, 철심 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 수 많은 펜플루라민 성분 함유 약물이 국내에서는 살 빼는 약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져 불법 유통되고 있다. 과다복용할 시에는 심한 두통과 설사, 구토 그리고 혈관계 계통 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다.

⑥ 디메틸트립타민(Dimethyltrptamine, 법 제2조 제3호 가목)

흔히 ‘DMT’로 불리는 환각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서인도제도나 남미 일부 지역 등에 자생하는 식물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로 환각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공이 용이해 전자 담배 카트리지 형태 및 원료 식물 형태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①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noids)

대마 환각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와는 화학구조가 다르지만 강력한 환각효과를 내는 합성물질이다. 합성 대마는 보통 식물을 건조한 허브 제품(Herbal Product)에 흡착시킨 형태로 판매되고, 이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어 보통 ‘허브 마약’이라 하면 합성 대마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 대마는 JWH계열로 알려진 JWH-018, JWH-030, JWH-176 및 그 유사체와 HU-210, CP-47497 등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강력

한 진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합성 대마는 최근 신종마약류(New Psychotropic Substances)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주로 단속되는 물질도 일정하지 않고 연도별로 유형을 타고 바뀌는 편이다.

㉔ JWH-018(법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 대마의 가장 많이 알려진 JWH-018은 일명 ‘스컹크’, ‘스파이스’ 등으로 불리며, 마약류인 대마와는 화학 구조적으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부작용으로는 효과가 대마보다도 훨씬 강하며,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과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킨다. JWH-018의 유사체로는 JWH-073, 250, 5F-UR-144, 5F-AKB-48, 5F-PB-22, MOMB-CHMINACA, AMB-FUBINACA 등이 있다.

㉕ HU-210(법 제2조 제3호 가목)

HU-210은 ‘1988년 스위스 히브루 대학(Hebrew University)의 ‘메코람’ 교수 연구팀이 처음으로 합성한 대마 성분으로서 ‘HU’는 Hebrew University의 약자를 의미한다.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의 THC 성분보다도 7~8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가 있고 지속시간이 더 길다.

㉖ AM-2201(법 제2조 제3호 가목)

AM-2201은 미국 대학의 연구센터에 있는 교수에 의해 특허 등록된 합성마약류이다. AM은 위 교수의 영문 이니셜을 의미한다. 합성마약류 성분을 건조 시킨 식물의 잎에 뿌려 흡착시킨 후, 비닐봉지에 1~10g씩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데, 그 환각효과는 JWH-018 계열 및 대마 THC의 수배 수준이며, 불소 성분을 함유해 불쾌한 냄새로 인해 젖은 빵이나 말린 과일 등에 넣어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허브와 섞어 흡연한다.

㉗ 크라툼(Kratom, 법 제2조 제3호 가목)

크라툼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열대지역에서 자생하는 미트라지나 나무 또는 그 잎을 뜻하는 태국말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라 하며, 다 자라면 높이가 15m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은 고통을 참아가며 힘든 일을 하기 위한 각성제의 일종으로 그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며,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한다. 소량 복용 시 코카인과 같은 각성효과로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다량으로 복용하면 진정 효과, 도취 효과와 함께 오심, 구토,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고, 알코올과 같은 후유증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툼에 가장 많이 함유된 ‘미트라기닌’이라는 향정신성 물질로 인해 복용 시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③ 케타민(Ketamine, 법 제2조 제3호 나목)

케타민은 ‘1962년 미국 웨인주립대(Wayne State University)의 화학 교수인 스티븐스(Calvin L. Stevens)가 처음 합성한 전신마취제로 ’197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케탈라(Ketalar)라는 케타민 약품의 사용을 승인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에 사용되었다가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어 동물용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었다.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 남용되는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으로도 불린다.

정맥이나 근육에 주사하거나, 흡연이나 흡입하면 자신의 신체에서 이탈하는 듯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며,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④ 야바(YABA, 법 제2조 제3호 나목)

야바는 ‘1938년 독일 Temmler Werke GmbH가 ‘Pervitin’이라는 상품명으로 최초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들의 각성효과를 이용한 전투력 증대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후 ‘1970년대 야바 제조법이 태국에 알려져 미얀마의 세계적 헤로인 밀매업자였던 쿤사(Khun Sa) 조직이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미얀마에서 많이 생산되어 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야바는 자체가 특정 성분이 아니라,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혼합제제로 메스암페타민(30%), 카페인(60%), 코데인(10%) 등 각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야바는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용의하게 하려고 일반적인 필로폰과 달리 노란색과 붉은색을 띠고 있고, 정제나 캡슐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러 물질이 복합 작용하여 환각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격한 흥분과 신경조직이 파괴된다. 또한 탈수 증세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의 부작용도 일으킨다. 수일간 과다하게 복용하면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⑤ GHB(Gamma Hydroxy Butyrate, 법 제2조 제3호 라목)

GHB는 속칭 ‘물뽕’으로 불리며, 백색 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 소다수나 생수, 알코올 등에 몇 방울 희석하여 복용하게 되면 10~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며,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킨다. 특히, 12시간 이내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렵다.

최근 클럽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케타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으로 불리는 약물이다. ‘1960년대 초 프랑스 라보리(Henry Laborit) 박사가 신경전달물질인 GABA 연구에 이용하면서 최초 합성하였다. ‘1990년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부작용을 인정하여 시판 금지하기 전까지는 건강식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약물로 수면장애 치료제, 마취제, 마약 및 알코올 금단증상 치료제, 보디빌더들 사이에 근육강화제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으며, 이후 MDMA, 술과 함께 파티용 마약으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하였다. 미국에서는 GHB를 가장 엄격한 연방 통제를 받는 약물의 범주(Schedule I)에 포함시켜 GHB 소지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국내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외국인 교수가 GHB를 제조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 흥분제’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⑥ 프로포폴(Propofol, 법 제2조 제3호 라목)

프로포폴은 미다졸람과 함께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진정 수면 작용이 있는 정맥 투약 제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등에 사용이 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이나 수면내시경 마취 등에 사용된다. 영국기업이 최초 개발하여 '1977년 임상시험을 거쳐 '1992년부터 국내에 사용 허가되었다. 부작용으로는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해주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 저하, 경련, 두통, 어지러움, 착란, 흥분,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과 피로·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분 좋게 하는 환각효과가 있어 국내에서는 연예인·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 남용되어 '2011. 2. 1.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하얀 액체 형태로 일명 '우유 주사'라고 불린다.

(3) 대마(삼, hemp)

(가) 개요

삼(hemp), 마(麻)로 불리는 대마(大麻, Cannabis sativa L)는 칸나비스속 1년생 식물로서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원산지이며, 중국, 인도, 중남미, 북부 아프리카 등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로 사용하거나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온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물 중의 하나이지만 향정신성 특징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많은 나라에서 재배와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줄기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약재로, 종자는 조미료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전이 한참이던 '1960년 이후 흡연용 대마초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주요 대마 종류

① 대마초(大麻草, Marijuana, 제2조 제4호 가목)

대마초는 법률상 정의인 칸나비스 식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THC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있는 대마의 잎과 꽃대의 윗부분만을 건조하여 담배 형태로 만든 것이 영어표현으로 '마리화나

(Marijuana)’인데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라고 한다. 마리화나는 포르투갈어인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대마초(마리화나)는 씨앗이 생성되는 시기에 비교적 풍부하게 생성되는 THC(tetrahydrocannabinol)라는 물질 때문에 흡연 시 도취, 환각 상태에 이른다. 남용 시에 공중으로 뜨는 느낌과 함께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감, 환각·환청 등을 일으키는데 제3자도 뚜렷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② 해시시(Hashish, 제2조 제4호 가목)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수지(resin)를 건조하여 압착 한 것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제조된 것으로 갈색·연갈색·흑색 등 덩어리 형태이며, 때로는 분말 형태로도 발견된다. 약 10%의 THC 성분을 함유하여 대마초보다도 8배~10배가량 작용성이 강하다. 보통 1kg의 대마초를 만들려면 약 30kg의 대마초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남용하면 정신건강 및 내분비 계통의 기능 장애, 면역능력 감소 등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정신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4) 임시마약류(신종마약)

(가) 개요

현행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규제 법률에 의해 기존의 마약류들과 동일하게 관리·통제되는 물질을 말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3년’이고 효력 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로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식약처에서는 현행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신종마약류를 최대한 빨리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 취급을 통제하기 위하여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원료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해 신종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7일 기준으로 지정된 임시마약류가 86종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표 3-4] 임시마약류의 분류

(2022.3.7. 기준)

분류	물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1군	2,3-DCPP, AL-LAD, phenibut 등	4종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등
2군	alkyl nitrite, 1P-LSD, Diclazepam 등	82종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등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1, P35, 재구성

(나) 대표적 임시마약류 종류

① 알킬 니트리트류(Alkyl nitrite, 임시마약류 2군)

Isobutyl nitrite(일명 ‘러시’), Isopentyl nitrite 등이 대표적인 물질로 ‘2013년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2군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강한 향을 지닌 노란 빛깔의 물약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국내 유흥업소 등지에서 여성 흥분제나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남용되고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 유발할 수 있고 18개월간 주기적 사용 시 황반변성 발생 우려로 의존성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다. 급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렴, 빈혈, 간독성)이 유발되기도 한다.

② 1P-LSD(임시마약류 2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신종물질로 ‘2016년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 LSD의 약 38%의 환각효과가 있고, 현재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③ Diclazepam(디클라제팜)(임시마약류 2군)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이며, ‘2016년 임시마약류로 최초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인체에 투여 시 뇌에서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불안 감소 및 긴장해소에 효과가 있으나, 중독성이 있고 해당 물질들을 장기투여하면 뇌세포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 마약류별 특성

[표 3-5] 마약류의 특성

분류	종류	약리 작용	의약용도	사용 방법	부작용	작용 시간
마약	아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신체조정력 상실, 도취감, 사망	3~6
	모르핀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졸음, 구토, 변비, 호흡수 감소, 저혈압	3~7
	헤로인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도파민 수용체 파괴, 내성 효과	3~4
	코카인	흥분	부분마취	주사, 코 흡입	흥분, 정신 혼동, 사망	2
	메타돈	억제	진정·진통	경구, 주사	신체조정력 상실, 도취감, 사망	12~24
	염산 페티딘	억제	진정·진통	주사	신체조정력 상실, 도취감, 사망	3~6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 흡입	환시, 환청, 피해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수면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 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1~6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경구, 주사	취한 행동, 뇌 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4~8
	L S D	억제	없음	경구, 주사	환각, 환청, 환시	8~12
	날부핀	억제	진정·진통	주사	정신 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3~6
	텍스트로메도르판 카리소프로돌	억제	진해 거담	경구	취한 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억제	식욕억제	경구	심장판막 질환, 정신분열	6~8
	케타민	억제	동물마취	경구, 주사, 흡연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1~6
대마	대마	환각	없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1, P38, 재구성

3) 신종마약류의 이해

신종마약류(Designer drug)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마약류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마약류이다. 최근에는 이미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약물의 중독성이 발견되어 오·남용 문제가 되기 시작한 마약류 또는 몇 가지 남용 약물을 섞어서 새로 조합한 물질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종마약류가 기존의 마약류보다도 위험한 이유는 최근의 신종마약류 유통은 대다수가 다크웹,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상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며, 기존 알려진 마약에 비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중독성은 기존 마약 이상이며, 또 다른 마약류에 쉽게 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마약류가 오일, 향수, 전자 담배 등의 형태로 밀반입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마약이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신종마약류는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과 함량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각종 질환의 치료에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허가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마약류사범으로 처벌을 받는 신종 마약류가 많이 있다.

4) 마약류 범죄 관련 규제법률

가)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표 3-6] 마약

구분 \ 유형	단순 투약	수수, 관리, 소지, 소유	수·출입, 제조, 알선, 판매
마약(아편·모르핀·헤로인·코카인·메타돈·펜타닐)	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표 3-7] 향정신성의약품

구분 \ 유형	단순 투약, 소지, 사용	판매, 알선, 수수, 제공	수·출입, 제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83개) (LSD·JWH-018 등)	제59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43개) (필로폰·엑스터시 등)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58조 제1항 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다’목(61개) (바르비탈·알페날 등)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59조 제1항 제10호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라’목(70개) (졸피탐·프로포폴 등)	제60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다)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표 3-8] 대마

구분 \ 유형	흡연, 소지, 운반, 보관, 사용, 재배, 흡연 장소·운반수단 제공	판매, 알선, 수수, 수출목적 재배, 제공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대마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1년 이상 징역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기타 규제법률

[표 3-9] 기타 규제법률

환각물질, 섭취, 흡입, 흡입목적 소지·판매·제공	인터넷이나 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 제조 방법 등을 유포	마약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마약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화확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 장 청소년 마약류 범죄 현황

제 1 절 국내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분석

1) 국내 발생 현황 및 분석

가) 마약류 사범 별 추세

우리나라의 전체 마약류 사범은 '1999년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선 후 '2002년도까지 10,000명을 상회하다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2006년도까지 7,000명 대로 감소하였다. 이후 10,000명 선을 오르내리다 '2015년부터 다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16년도 14,124명, '2017년도 14,123명, '2018년도 12,613명, '2019년도 16,044명, '2020년도 18,050명, '2021년도 16,153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최근 국내의 마약류 사범들이 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의 공급자들과 국제우편, 해외 공구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의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132,116명을 마약류 사범별로 분석을 해보면, 마약사범은 13,163명으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마약사범의 대부분은 양귀비 밀경작 사범들로 농촌, 산간·도서 지역 등의 고령층 어르신들이 관상용, 가정상비약, 가축의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경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100,080명으로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2년도 82.4%, '2013년도 81.0%, '2014년도 81.3%, '2015년도 80.8%, '2016년도 80.2%, '2017년도 77.3%, '2018년도 76.2%, '2019년도 72.4%, '2020년도 70.0%, '2021년도 65.8%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남용하는 사범들이 가장 많이 검거되고 있다.

대마사범은 18,858명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 1,727

명, ‘2018년도 1,533명으로 유지되다가, ‘2019년도 2,600여 명, ‘2020년도에 3,200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21년도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였음에도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등의 대마의 합법화 추세에 따라 방문자, 유학생 등이 대마와 관련된 제품 등을 밀반입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매년 10대, 20대 청소년들 대마사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4-1] 2012~2021년 국내 전체 마약류 사범 현황 (단위: 명, %)

연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검거	비율	검거	비율	검거	비율	검거	비율
2012	582	(6.3)	7,631	(82.4)	1,042	(11.3)	9,255	(100)
2013	685	(7.0)	7,902	(81.0)	1,177	(12.0)	9,764	(100)
2014	676	(6.8)	8,121	(81.3)	1,187	(11.9)	9,984	(100)
2015	1,153	(9.8)	9,624	(80.8)	1,139	(9.6)	11,916	(100)
2016	1,383	(9.7)	11,396	(80.2)	1,435	(10.1)	14,214	(100)
2017	1,475	(10.5)	10,921	(77.3)	1,727	(12.2)	14,123	(100)
2018	1,467	(11.6)	9,613	(76.2)	1,533	(12.2)	12,613	(100)
2019	1,804	(11.2)	11,611	(72.4)	2,629	(16.4)	16,044	(100)
2020	2,193	(12.2)	12,640	(70.0)	3,212	(17.8)	18,050	(100)
2021	1,745	(10.8)	10,631	(65.8)	3,777	(23.4)	16,153	(100)
합계	13,163	(10.0)	100,090	(75.7)	18,858	(14.3)	132,116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2~2021, 재판집

나)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표 4-2]의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들의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의 비율을 보면 ‘2012년도 8.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1%에 이르고 있다. 10대의 비율도 ‘2012년 0.4%에서 ‘2021년 2.8%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를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우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2020년에는 30대, ‘2021년에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2012~2021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종류 연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2012	38 (0.4)	758 (8.2)	2,493 (26.9)	3,516 (38.0)	1,717 (18.6)	566 (6.1)	167 (1.8)	9,255 (100)
2013	58 (0.6)	1,010 (10.3)	2,500 (25.6)	3,539 (36.2)	1,833 (18.8)	642 (6.6)	182 (1.9)	9,764 (100)
2014	102 (1.0)	1,174 (11.8)	2,640 (26.4)	3,542 (35.5)	1,768 (17.7)	603 (6.0)	155 (1.6)	9,984 (100)
2015	128 (1.0)	1,305 (11.0)	2,878 (24.2)	4,099 (34.4)	2,190 (18.4)	1,124 (9.4)	192 (1.6)	11,916 (100)
2016	121 (0.9)	1,842 (13.0)	3,526 (24.8)	4,496 (31.6)	2,659 (18.7)	1,378 (9.7)	192 (1.3)	14,214 (100)
2017	119 (0.9)	2,112 (15.0)	3,676 (26.0)	3,919 (27.7)	2,589 (18.3)	1,491 (10.6)	217 (1.5)	14,123 (100)
2018	143 (1.1)	2,118 (16.8)	2,996 (23.8)	3,305 (26.2)	2,352 (18.6)	1,457 (11.6)	242 (1.9)	12,613 (100)
2019	239 (1.5)	3,521 (21.9)	4,126 (25.7)	3,487 (21.7)	2,554 (16.0)	1,598 (10.0)	519 (3.2)	16,044 (100)
2020	313 (1.7)	4,493 (24.9)	4,516 (25.0)	3,599 (20.0)	2,423 (13.4)	2,232 (12.4)	474 (2.6)	18,050 (100)
2021	450 (2.8)	5,077 (31.4)	4,096 (25.4)	2,670 (16.5)	1,992 (12.3)	1,550 (9.6)	318 (2.0)	16,153 (100)
합계 (%)	1,711 (1.3)	23,410 (17.7)	33,447 (25.3)	36,172 (27.4)	22,077 (16.7)	12,641 (9.6)	2,658 (2.0)	132,116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2~2021, 재판집

[표 4-3]의 최근 10년간 검거된 마약사범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도와 관계없이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5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대와 20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0.3%였으나, ‘2020년도에는 39명으로 1.8%, ‘2021년도에는 196명으로 11.7%에 이르러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경남 경찰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판매·투약한 청소년 마약사범들을 많이 검거하였고, 최근 래퍼들과 10대 청소년들이 사이에 ‘펜타닐 패치’가 널리 퍼져 있어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청소년들의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표 4-3] 2012~2021년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종류 연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2012	8 (0.0)	19 (3.3)	20 (3.4)	69 (11.9)	138 (23.7)	330 (56.7)	6 (1.0)	590 (100)
2013	2 (0.3)	23 (3.4)	52 (7.6)	66 (9.6)	118 (17.2)	393 (57.4)	31 (4.5)	685 (100)
2014	0 (0.0)	33 (4.9)	57 (8.4)	67 (9.9)	119 (17.6)	377 (55.8)	23 (3.4)	676 (100)
2015	0 (1.0)	24 (2.1)	53 (4.6)	77 (6.7)	231 (20.0)	743 (64.4)	25 (2.2)	1,153 (100)
2016	2 (0.1)	37 (2.7)	57 (4.1)	114 (8.3)	230 (16.6)	918 (66.4)	25 (1.8)	1,383 (100)
2017	0 (0.0)	42 (2.8)	85 (5.8)	112 (7.6)	223 (15.1)	990 (67.1)	23 (1.6)	1,475 (100)
2018	2 (0.1)	65 (4.4)	71 (4.8)	103 (7.0)	236 (16.1)	961 (65.5)	29 (2.0)	1,467 (100)
2019	3 (0.2)	99 (5.5)	139 (7.7)	107 (5.9)	237 (13.1)	1,098 (60.9)	121 (6.7)	1,804 (100)
2020	39 (1.8)	116 (5.3)	84 (3.8)	101 (4.6)	247 (11.2)	1,550 (70.5)	61 (2.8)	2,198 (100)
2021	196 (11.2)	150 (8.6)	88 (5.0)	78 (4.5)	176 (10.1)	990 (56.7)	67 (3.8)	1,745 (100)
합계 (%)	252 (1.9)	608 (4.6)	706 (5.4)	894 (6.8)	1,955 (14.8)	8,350 (63.4)	411 (3.1)	13,176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2~2021, 재편집

[표 4-4]의 최근 10년간 검거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0대 향정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30대의 순이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의 경우에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20대 향정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향정사범의 경우 ‘2012년에는 570명으로 7.5%의 비율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044명으로 2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10대 향정사범도 ‘2012년 26명으로 0.3%의 비율에서 ‘2021년 192명 1.8%로 꾸준히 높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검거되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들이 65~70%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4] 2012~2021년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종류 연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2012	26	570	2,201	3,152	1,377	170	135	7,631
	(0.3)	(7.5)	(28.8)	(41.3)	(18.0)	(2.2)	(1.8)	(100)
2013	39	674	2,154	3,202	1,531	181	121	7,902
	(0.5)	(8.5)	(27.3)	(40.5)	(19.4)	(2.3)	(1.5)	(100)
2014	48	819	2,279	3,196	1,480	183	116	8,121
	(0.6)	(10.1)	(28.1)	(39.4)	(18.2)	(2.3)	(1.4)	(100)
2015	78	970	2,548	3,786	1,786	318	138	9,624
	(0.8)	(10.1)	(26.5)	(39.3)	(18.6)	(3.3)	(1.4)	(100)
2016	81	1,401	3,060	4,094	2,228	373	149	11,386
	(0.8)	(12.3)	(26.8)	(35.9)	(19.3)	(3.3)	(1.3)	(100)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1.1)	(15.8)	(26.2)	(31.0)	(20.0)	(4.0)	(1.8)	(100)
2019	167	2,255	3,239	3,123	2,092	403	332	11,611
	(1.4)	(19.4)	(27.9)	(26.9)	(18.0)	(3.5)	(2.9)	(100)
2020	196	2,896	3,449	3,204	1,996	562	337	12,640
	(1.6)	(22.9)	(27.3)	(25.3)	(15.8)	(4.4)	(2.7)	(100)
2021	192	3,044	2,819	2,287	1,632	455	202	10,631
	(1.8)	(28.6)	(26.5)	(21.5)	(15.4)	(4.3)	(1.9)	(100)
합계	1,002	15,631	27,407	32,522	18,251	3,406	1,861	100,080
(%)	(1.0)	(15.6)	(27.4)	(32.5)	(18.2)	(3.4)	(1.9)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2~2021, 재편집

[표 4-5]의 최근 10년간 검거된 전체 대마사범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2년도에는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부터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았다. 최근으로 넘어올수록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대가 1,883명으로 비율이 50.5%로 전체 대마사범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검거된 전체 대마사범 18,858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더라도 20대 대마사범이 7,169명으로 38%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 대마사범이 5,334명으로 28.3%의 비율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2012~2021년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종류 연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연령미상	합계
2012	12 (1.2)	169 (16.2)	272 (26.1)	295 (28.3)	202 (19.4)	66 (6.3)	26 (2.5)	1,042 (100)
2013	17 (1.4)	313 (26.6)	294 (25.0)	271 (23.0)	184 (15.6)	68 (5.8)	30 (2.5)	1,177 (100)
2014	56 (4.7)	320 (27.0)	304 (25.6)	279 (23.5)	169 (14.2)	43 (3.6)	16 (1.3)	1,187 (100)
2015	50 (4.4)	311 (27.3)	277 (24.3)	236 (20.7)	173 (15.2)	63 (5.5)	29 (2.5)	1,139 (100)
2016	28 (1.9)	404 (28.1)	409 (28.5)	288 (20.1)	201 (14.0)	87 (6.1)	18 (1.3)	1,435 (100)
2017	49 (2.8)	590 (34.2)	455 (26.4)	308 (17.8)	161 (9.3)	129 (7.5)	35 (2.0)	1,727 (100)
2018	36 (2.3)	531 (34.6)	403 (26.3)	223 (14.5)	192 (12.5)	107 (7.0)	41 (2.7)	1,533 (100)
2019	69 (2.6)	1,167 (44.4)	748 (28.5)	257 (9.8)	225 (8.6)	97 (3.7)	66 (2.5)	2,629 (100)
2020	78 (2.4)	1,481 (46.1)	983 (30.6)	294 (9.2)	180 (5.6)	120 (3.7)	76 (2.4)	3,212 (100)
2021	62 (1.6)	1,883 (49.9)	1,189 (31.5)	305 (8.1)	184 (4.9)	105 (2.8)	49 (1.3)	3,777 (100)
합계 (%)	457 (2.4)	7,169 (38.0)	5,334 (28.3)	2,756 (14.6)	1,871 (9.9)	885 (4.7)	386 (2.1)	18,858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2~2021, 재편집

2) 최근 발생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성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다크웹, 텔레그램, 트위터 등의 인터넷·SNS 등과 가상통화, 던지기 수법을 결합한 철저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둘째, 최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하고 판매까지 하다 검거되는 청소년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증가하였고, 셋째, 평소 스마트폰을 상시로 사용하며 인터넷이나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 청소년들이 다크웹 등 인터넷과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와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초범들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넷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고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해외직구 등을 통한 해외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범죄가 증가하였고, 다섯째,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이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여섯째, 국내에서 기존 유통되던 마약류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환각효과 등은 더욱 강한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해외직구나 국제 특송 화물 등을 통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분석

1)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추세

[표 4-6]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 청소년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124,895명 중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711명으로 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은 전체 검거인원 16,152명 중 450명으로 2.8%의 비율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8세 다음으로 17세, 16세, 15세, 14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4~15세의 연도별로 검거되는 비율이 6~9%로 저연령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 2012~2021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단위: 명, %)

종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전체 검거인원	9,255	9,764	9,742	11,916	14,214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124,895
청소년 마약류사범	38	58	102	128	121	119	143	239	313	450	1,711
청소년 비율	0.4	0.6	1.0	1.1	0.9	0.8	1.1	1.5	1.7	2.8	1.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2~2021, 재편집

[표 4-7]의 최근 5년간(2016~2020)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범행동기

를 살펴보면, 이 통계는 아무래도 검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마약류 사범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행동기를 분류하는 관계로 기타나 미상의 비율이 높아 개인별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을 해보면 호기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도 경우에는 호기심이 43.7%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 마약류 사범의 경우를 살펴보면 범행동기의 원인으로 중독이 21.7%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기심은 13.8%였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발달 특성상 또래인 친구들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류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전영실 등, 2022: 19).

또한 공범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래들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공범이 대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회 친구, 동네 친구, 학교 동창들과 함께 의기투합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예방에 있어 주변 친구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4-7] 청소년 마약류 사범 범행동기(2016~2020) (단위: 명, %)

구분 연도	전체	이욕	사행심	호기심	유흥	우발적	현실 불만	부주의	기타	미상
2016	44 (100)	1 (2.3)	0 (0.0)	13 (29.6)	11 (25.0)	1 (2.3)	0 (0.0)	1 (2.3)	13 (29.6)	4 (9.1)
2017	43 (100)	1 (2.3)	0 (0.0)	11 (25.6)	5 (11.6)	5 (11.6)	0 (0.0)	0 (0.0)	15 (34.9)	6 (14.0)
2018	58 (100)	7 (12.1)	0 (0.0)	11 (19.0)	6 (10.3)	2 (3.5)	0 (0.0)	0 (0.0)	17 (29.3)	15 (25.9)
2019	85 (100)	5 (5.9)	1 (1.2)	15 (17.7)	2 (2.4)	2 (2.4)	1 (1.2)	3 (3.5)	16 (18.8)	40 (47.1)
2020	135 (100)	3 (2.2)	0 (0.0)	59 (43.7)	4 (3.0)	10 (7.4)	2 (1.5)	1 (0.7)	34 (25.2)	22 (16.3)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2021, 재편집

2) 청소년 오·남용 의료용 마약류 분석

[표 4-8]의 '2019년과 '2020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사용자)는 17,475,493명으로 '2019

년 18,502,227명 대비 5.9% 감소하였지만, 사용자들이 ‘2020년 처방받은 마약류의 양은 17억5천1백만 정으로 전년도의 16억8천2백만여 정보다 3.9%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복용한 의료용 마약류는 평균적으로 마약류 처방 환자(사용자) 1인당 56정(개) 이상의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내역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10대 청소년의 경우 555,777명이 3천6백만여 정을 처방받았고, 20대는 1,434,989명이 1억3천1백만여 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중 20대 이하는 전체 마약류 처방 환자(사용자)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류 처방 환자는 3% 정도였으며, 20대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의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 1.2%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1.9% 증가하는 등 다른 연령대보다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청년의 사용자와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마약류의 내성과 중독이라는 특성으로 살펴보면 10대 때부터 장기적으로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는 20대가 많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현정, 2022).

모든 사람이 마약이라고 하면 위험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통계에서도 보듯이 최근 의료용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태 분석한 청소년 마약류 사범들의 최근 검거 사례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다도 검거된 청소년들 대다수가 ‘마약류를 권유한 주변 친구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약이라 안전하다고 해서 투약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진통제나 살을 빼는 약이 이렇게 위험한 마약인 줄을 몰랐고,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교에서 이런 약들이 마약이라고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들릴 수도 있으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제대로 된 마약류 중독예방

과 관련된 학교 내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표 4-8] 2019~2020년 연령대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단위: 명, 개)

연령	2019년		2020년	
	환자수(명)	처방량(개)	환자수(명)	처방량(개)
10대 이하	665,758	36,078,281	555,777	35,954,027
20대	1,418,209	115,670,250	1,434,989	131,303,732
30대	2,412,693	202,648,834	2,282,872	210,333,604
40대	3,651,703	268,325,665	3,361,689	281,166,342
50대	3,913,971	310,747,715	3,675,140	315,149,993
60대	3,156,197	300,638,655	3,187,190	322,476,185
70대	1,925,537	260,315,173	1,879,425	264,580,722
80대	875,264	154,861,139	881,943	163,295,401
90대 이상	113,084	20,627,599	119,202	22,932,859
기타	369,811	12,333,035	97,266	4,196,720
합계	18,502,227	1,682,246,346	17,475,493	1,751,389,58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가통계포털(KOSIS), 2019~2020, 재편집

3)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주의 특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10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마약류 오·남용의 증가와 20~30대 젊은 층의 마약류 사범 증가 현상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검거된 10~20대 마약류 사범 5,527명 중 58.5%인 3,236명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었다. 대마사범이 1,945명으로 35.1%, 마약사범은 346명으로 6.2%에 비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대다수가 지정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연루된 마약류 사건 중 ‘2021년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아 판매하고, ‘펜타닐 패치’에 들어 있는 마약 성분을 약간의 과정을 거쳐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고등학생 28명이 포함된 10대 청소년 54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심지어 이들중 일부는 다니고 있던 학교 내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사건의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 10대 청소년들의 사이에 마약류가 확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크웹,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각종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보니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SNS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은어 등을 검색해보면 각종 마약류 판매 관련 정보와 투약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판매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레 불법적인 마약류 광고에 자주 노출되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친구들과 공유하며 마약류에 쉽게 접촉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일부 청소년 중에는 친구들 사이의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공유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주와 흡연 예방교육 위주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으로 인하여 마약류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해 오는 무지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과, 식욕억제제 등을 마약류라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남용하여 마약류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98~99%의 학교가 유해약물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헤럴드경제, 2022), 오히려 해마다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사례와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청소년 상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실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제 5 장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

제 1 절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1) 사례 분석 틀

최근 발생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를 참여 관찰을 통한 질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사건 개요, 피의자 특성, 범행 특성, 사전 및 사후 관리 등 4가지 차원에서 1차적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사건 개요에는 각 사례의 사건검거 일시, 범행 기간, 수사 착수 경위를 피의자 특성으로는 청소년 수, 면담 내용을 분석한 피의자의 인구를 사회학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범행 특성으로는 범행동기, 투약 장소, 마약류의 종류, 처방 및 유통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여부와 같은 마약류 관련 사전 관리와 재활 현황 같은 사후 관리 분석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건 개요	사건 검거 일시, 범행기간,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 특성	청소년 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지역)
범행특성	범행 동기, 투약 장소, 처방 및 유통 방법, 마약 종류
사전, 사후 관리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여부, 재활 현황

〈그림 5-1〉 사례 분석 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아닌 연구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참여 관찰을 하는 연구자로서 사례를 심층적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사건 관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노출 우려 사항이 있는 수사 관련 정보 사항이 아닌 언론에 공개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사례는 〈사례 1〉 마약성 진통제

판매·투약 사건, 〈사례 2〉 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사건, 〈사례 3〉 ADHD 치료제 판매사건이며 마약류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건이다. 자료 조사 방법으로는 위 사건에 연루된 총 108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충실도가 높은 19명의 대상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마약류 사용 후 증상과 관련하여 49명의 참여 관찰에서 확인한 유의미한 면담자료를 질적 분석에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를 위한 표본 추출에는 적절성과 충분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 적절성이란 연구에 관하여 가장 좋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가 알 수 있고,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Morse & Field, 1995; 신경림 등, 2004; 심혜인, 2021).

[표 5-1] 분석자료

사례 분석자료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건검거일시	‘21. 4. 9.	‘22. 4. 15.	‘20. 11. 6.
범행기간	‘20.6.5.~‘21.4.29.	‘22.3.5~‘22.4.15	‘20. 11. 6.
피의자 특성	피의자 56명 中 10대 청소년 54명	피의자 63명 中 10대 청소년 53명	10대 청소년 1명
범행 특성	투약 및 판매	투약 및 판매	판매
마약	구분: 마약 성분: 펜타닐 용도: 마약성 진통제 제품명: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	구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용도: 식욕억제제 제품명: 디에타민	구분:향정신성의약품 성분: 메틸페니데이트 용도: ADHD 치료제 제품명: 콘서트사방정

제 2 절 사례 1 - 마약성 진통제 판매·투약 사례

1) <사례 1>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판매·투약 청소년 등 56명 검거

가) 사건 개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경남경찰청 112 신고 전화로 ‘고등학생들이 5~6명 모여서 공원 화장실이나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마약을 한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전자 담배 같은 것을 피우는데 상태를 보니까 마약을 한 것 같다’, ‘학교폭력 담당 경찰인 SPO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입수된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도 위 사건 학생들을 상대로 유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경남경찰청에서 통합하여 수사에 착수 후 고등학생들의 마약류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이다.

‘2020년 6월 5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의원 등에서 본인 명의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불법 취득한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56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피의자 33명을 포함하여 10대 청소년 총 54명이 연루된 사건이었으며, 최초로 경남 창원지역에 ‘펜타닐 패치’ 투약 방법과 불법 취득 방법을 전파한 청소년 1명은 판매책 혐의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27장의 ‘펜타닐 패치’는 압수되었다.

나) 청소년 특성

‘펜타닐 패치’를 판매 또는 투약 등의 범죄를 한 청소년 54명은 대부분 고등학생들로서 59.2%(32명)이었으며, 대학생 9.3%(5명), 재학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은 31.5%(17명)이었다. 세부적인 연령으로는 19세가 50.0%(27명)로 가장 많았으며, 18세 27.8%(15명), 17세 22.2%(12명) 이었다. 성별의 분포는 남자는 72.2%(39명)이었으며, 여자는

27.8%(15명)로 나타났다. 창원지역 거주가 87.0%(47명)이었으며, 김해 지역 13.0%(7명)로 확인되었다.

다) 투약 장소

‘펜타닐 패치’의 사용 장소는 주로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 ‘PC방이 있는 상가 내 공중화장실’, ‘모텔’, ‘지인 차량 내’,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교내 화장실 또는 교실’ 등으로 확인되었다.

‘펜타닐 패치’를 처음 흡입 시에는 누가 볼까 봐 두려워 같이 어울리는 친구 몇 명과 함께 하거나 혼자 숨어서 흡입하곤 하였는데 남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중독이 되고 금단증상이 심해져서 그런지 두려움도 없어지고 점점 대담해져 학교 내 화장실과 교실 내에서 까지 흡입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펜타닐 패치’를 남용한 경험이 있는 해당 사건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최근까지도 금단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였다. ‘펜타닐 패치’를 구해서 계속적으로 투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남지역에는 소문이 나 처방을 해주지 않아, 인근 지방으로 원정을 다니고 있으나, 이곳에서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펜타닐 패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청소년들에게 쉽게 처방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일부 청소년들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다른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복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나 이전 펜타닐 패치 투약 때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부는 병·의원에서의 처방보다 텔레그램 등 SNS에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다는 이유와 심각한 금단증상으로 인해 필로폰이나 합성대마 같은 신종마약류로 바꾸어 투약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처방·유통 방법

청소년들은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남·부산지역의 병·의원 25곳에서 본인 및 불법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진료를 신청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 통증이 심하다’, ‘만성 통증이 심하다’, ‘이전에 처방받은 적이 있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전을 받았고, 일부는 이전에 처방받은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진료시 보여주며 처방전을 받아 마약류를 판매가 지정된 약국에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불법 취득하고 소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처방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과거 병력 여부, 연령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부하였으며, 특정 병원에서는 최대 9번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1매에 1만5천 원씩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1매에 15만원, 2분의 1 크기로 잘라 7만 원~8만 원, 4분의 1 크기로 잘라 2만원~3만 원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가격의 10배의 값을 매겨 또래 청소년들에게 권유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 것을 확인하였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같은 주말에 ‘펜타닐 패치’를 구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아 가격을 올려서 받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 이들로부터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는 수법을 배워 본인들이 직접 인근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예전부터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가능성과 심각한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병원에서 처방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취득하여 판매하고 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은영 등, 2022).

마) 범행동기

‘펜타닐 패치’ 남용 청소년의 첫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로 확인이 되며, 여학생의 경우 남자친구 등 가장 가까이 있는 또래 친구의 권유에 의한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펜타닐 패치’ 첫 범행에는 호기심이나 권유로 처음 접하게 되지만 이후부터는 마약류의 특성인 심각한 중독과 금단증상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SNS 메신저와 친구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게 되고, 또래 사이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펜타닐 패치의 구입자금으로 인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허위로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하거나, 일부는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받아 친구와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판매책으로 가담하는 등의 범행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범행동기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 [표 4-7]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135명 중 호기심이 59명으로 전체 43.7%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 또래들과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류를 처음 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남용된 마약류 - ‘펜타닐(fentanyl)’

〈사례 1〉에서 사용된 ‘펜타닐 패치’와 같은 마약류 투약은 금단증상이 특히 심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지만, 곧 다시 펜타닐 패치를 찾게 되고, 구할 수 없을 때는 더욱더 강한 또 다른 마약류를 찾아 투약을 함으로써 더 심각한 중독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청소년 46명의 ‘펜타닐 패치 투약 후 나타난 증상’을 정리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풀려고’ 등의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도 일부는 있었지만, 오히려 대다수가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 졸림 등의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이 좋아진 일부 청소년도 평소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다가 진정제 계열인 ‘펜타닐 패치’ 성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잠을 잔 것으로 인해 마치 기분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펜타닐(fentanyl)’은 아편이나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Opioid)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알려진 바로는 모르핀(Morphin)의 100배, 헤로인(Heroin)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진통, 진정 효과가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10).

‘1959년 벨기에의 의학자이자 얀센제약 회사의 창업자인 폴 얀센(Paul Janssen)이 처음으로 개발하여 ‘1960년대 정맥주사 마취제 용도로 처음 도입된 합성마약이다. 펜타닐은 국내에서는 캔디 형태로 빨아먹는 ‘트로키제’, 뺨 안쪽으로 녹여 구강 점막으로 흡수하는 ‘박칼정’, 혀 밑에서 녹이는 ‘설하정’, 피부에 붙이는 ‘패치’, 코에 뿌리는 ‘비강 스프레이’, ‘주사제’ 등의 형태로 허가되어 유통되고 있고, 비마약성 통증제의 효과가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하여야 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경찰청, 2021).



[표 5-2] 펜타닐 패치 투약 후 느낀 증상

(□ 남자, △ 여자)

연번	대 상 자	펜타닐 패치 투약 후 느낀 증상(조사 시 진술)
1	□ (19세)	1~2시간 기분 좋아짐, 핑 돌며 쾌감, 그 뒤 몸이 축 처져 잠이 옴
2	□ (19세)	몸이 조금 간지러운 정도, 호기심에 하게 됨
3	□ (19세)	어지러움, 멍해짐, 많이 하면 구토, 약간 기분은 좋아짐
4	△ (19세)	몸이 간지러움, 냄새로 인해 구토
5	△ (18세)	멍해짐
6	△ (18세)	느낌 없음
7	△ (19세)	몸이 붓 뜨는 느낌, 기분 좋음, 현실 벗어난 듯한 느낌
8	□ (19세)	구토
9	□ (19세)	술 취한 듯 알팔팔
10	□ (19세)	몸이 간지러움, 구토
11	□ (17세)	구토, 잠이 옴, 화난 것이 생각나지 않음
12	□ (19세)	몽롱, 어지러움, 기분 좋아짐
13	□ (19세)	몸이 나른, 구토, 잠이 옴
14	□ (18세)	몸이 간지러움, 30분~1시간 정도 기분 좋음
15	□ (19세)	어지러움, 메스꺼움, 잠이 옴
16	□ (19세)	메스꺼움, 30분~1시간 정도 기분 좋음
17	□ (19세)	메스꺼움, 어지러움, 기분 좋음
18	□ (19세)	술 마신 듯, 몸이 나른, 잠이 옴
19	□ (19세)	몸이 간지러움, 기분 좋음
20	□ (17세)	몸이 간지러움, 어지러움, 기분 좋음
21	□ (19세)	메스꺼움, 머리 아픔.
22	□ (17세)	어지러움
23	□ (19세)	메스꺼움, 어지러움
24	□ (17세)	기분 좋음, 술 마신 듯 어지러움, 메스꺼움
25	□ (19세)	기분 좋음, 메스꺼움, 구토
26	△ (17세)	어지러움, 메스꺼움
27	△ (19세)	잠이 옴
28	□ (17세)	어지러움, 메스꺼움, 기분 좋음
29	□ (18세)	속이 메스꺼움, 어지러움
30	□ (18세)	정신이 몽롱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31	□ (18세)	어지러움, 다른 친구들이 함께 패치를 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임
32	□ (18세)	속이 메스꺼움, 구토, 술 마신 듯 몽롱한 느낌
33	□ (18세)	몸에서 땀이 나고 기침이 나며, 한기가 든다
34	□ (18세)	몸이 간지러움, 속이 울렁거림
35	△ (18세)	술 마신 듯 어지러운 느낌, 기분 좋음
36	□ (19세)	몸이 간지러움, 몽롱한 느낌, 메스꺼움
37	□ (18세)	몸 전체가 가려움, 메스꺼움
38	□ (19세)	기분 좋아짐, 어지러움
38	△ (19세)	어지러움, 메스꺼움
39	△ (18세)	울렁거림, 구토, 메스꺼움
40	□ (17세)	술을 마신 기분, 한 번씩 구토
41	□ (17세)	기분 좋아짐
42	□ (18세)	구토, 몽롱한 느낌
43	□ (20세)	술에 취한 듯이 몽롱한 기분, 기분이 좋았음, 그 뒤 구토
44	□ (18세)	핑 도는 듯한 어지러운 느낌, 몸이 간지러움
46	□ (19세)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짐

‘펜타닐’은 중독성도 강하고 독성도 매우 강하여 의료 외 목적으로 오·남용을 하게 되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금단증상도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다투여를 하게 되면 호흡기능 저하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펜타닐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존성이 매우 강해서 ‘1964년 UN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해 통제물질로 지정되었다(검찰청, 2021).

‘2021년 미국에서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10만 명(10만7,622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와 총기 사고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하며, 이들 사망자 중에 3분의 2가 펜타닐의 오·남용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천연마약들과는 달리 간단한 화학물질 조합만으로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합성마약의 끝판왕’(한국일보, 2022),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으로 불리고 있으며 펜타닐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1〉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한 ‘펜타닐’은 여러 가지 펜타닐 제형 중에서 패치 형태를 남용하였다. ‘펜타닐 패치’는 주로 말기 암 환자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의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1매당 3일 최대 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계속 사용으로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마약류 사용에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환자가 사용 중이던 마약성 진통제를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 중대한 금단증상과 조절되지 않는 통증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 등이 보고된 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전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거나 마약성 진통제에 내성이 없는 환자 그리고 경미하거나 간헐적인 통증 조절 목적의 환자, 급성 통증 조절이나 수술 후 통증 조절 목적의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약학 정보원, 2022).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18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처방은 유의하라는 안전기준이 있는데도 10대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특별한 검사도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도 하고 투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병원들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금기사항에 따르면 펜타닐 성분에 대하여는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효능중복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노인주의 등의 안전기준을 정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연령대금기 사항을 살펴보면 주사제에 대한 2세 미만과 주사제, 구강정, 박칼정, 설하정, 점비액제 등의 제형에 대한 18세 미만의 연령금기만 있을 뿐 패치형에 대한 금기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경남경찰청에서는 수사를 종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패치형의 경우에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처방 시에는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제도개선을 의뢰하여 '21.5.27.자로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하여는 투여를 금기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이 개선되어 재 하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펜타닐 패치’는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사 형태나 분말 형태보다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조절되는 이러한 패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쉽게 처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약 마목에 지정되어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사) 재할 현황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나면 처음 조사를 받았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서는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중독 재활 여부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마약류 사범들은 자신이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결과가 궁금해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 담당하였던 수사관들과는 연락을 끊어 버려 재활 지속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검거되었던 한 여자 청소년(18세)은 재활을 하기

위하여 당시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다. 이 청소년은 마약류 중독을 끊기 위하여 아주 강한 의지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느껴졌다. 이 청소년은 재활을 위해서는 먼저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해야 될 거 같다며,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SNS 메신저도 다 바꾸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주소지도 옮겼다. 관찰기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재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매우 힘겨워 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단약의 성공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사례를 통해 ‘펜타닐 패치’ 같은 의료용 마약류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청소년들이 위험한 마약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심지어 교내에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남용하였고, 일부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약을 하는 등 중독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투약 청소년들은 조사 도중에 ‘누군가가 몽둥이로 자신의 몸을 심하게 때리는 것 같다’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전형적인 금단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앞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처벌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재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활 방안 관련 대책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여부

이번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현재 학교 내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한 번씩 받기는 하였으나, 흡연 예방과 음주 예방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마약류와 관련되어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하였다. 특히, ‘펜타닐 패치’가 문제가 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이라는 사실도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다수 청소년은 검거 후 조사과정에서 병원에서 처방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펜타닐 패치’가 이렇게 무서운 마약인 줄을 몰랐으며, 이렇게 위험한 마약인 줄 알았더라면 친구들이 권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나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헤로인 같은 것들만 마약인 줄 알았으며, 이렇게 병원 에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마약인 줄을 정말 몰랐다고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아마도 청소년들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배우지 못해 무지로 인하여 의료용 마약류에 쉽게 접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앞으로는 마약류에 대한 교육 시간을 좀 더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마약류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사전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에게 어려서부터 마약류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마약류의 판매나 투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취득하고 있고, 또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SNS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학년과 연령에 맞추어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청소년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지도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 3 절 사례 2 - 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사건

2) <사례 2>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판매·투약 청소년 등 63명 검거

가) 사건 개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살을 빼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트위터, 틱톡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곳을 통해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는 판매책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검색 중,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인 알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제품과 관련된 판매 광고를 가장 많이 올려두고, SNS 채팅을 통해 거래 후, 편의점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 3~4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일부 트위터 계정의 명의자인 중·고등학생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였다.

‘2022년 3월 5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트위터 등 SNS에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대구·광주지역에 있는 병·의원 등에서 ‘살을 빼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명의로 진료를 받고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제품을 567정을 취득한 뒤, 트위터 등 SNS에 ‘디에타민 처분/달구’라는 광고를 올려 판매하고,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 및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 6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중·고등학생, 거리 밖 청소년 등 10대 청소년 53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거나, SNS를 통해 구입을 하였으나 한두 번 먹어 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트위터를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중이던 식욕억제제 106정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 특성

〈사례 2〉 식욕억제제 판매·투약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은 53명으로 98.1%(52명)이 여자였으며, 남자는 1.9%(1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46.3%(25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35.2%(19명), 대학생 16.7%(9명),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청소년이 1.8%(1명)이었다. 세부 연령으로는 16세가 28.3%(15명)로 가장 많았고, 14세 18.9%(10명), 15세 15.1%(8명), 17세 13.2%(7명), 13세 11.3%(6명), 18세 7.5%(4명), 19세 5.7%(3명)로 연령이 분포되었다. 특히, 13세 청소년이 6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이중 트위터로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 1명도 포함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으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가 36.5%(23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4%(11명), 강원 9.5%(6명), 인천 7.9%(5명), 경남 6.3%(4명)로 분포가 높은 5순위 지역을 볼 수 있었다.

다) 범행동기 및 투약 장소

고등학교 남자 청소년(17세) 1명은 운동선수로 체중조절에 실패하여 살을 뺄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여학생 대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집에만 있으면서 살이 많이 켜 교복이 맞지 않아 다시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학교에 가기 전에 살을 빼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여학생들은 인터넷에 ‘프로아나’(극단적 마른 몸매 추구)라는 신조어의 등장에 따라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틱톡 등 SNS에 올려져 있는 ‘뽀말라족’, ‘개말라족’, ‘말라족’ 등의 은어와 같이 이 식욕억제제를 먹고 극단적으로 살을 빼고 사진을 찍은 후, ‘틱톡’ 등에 올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해서 나도 모두에게 주목받고 싶어 약을 구매하였다고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트위터로 살이 빠지는 약인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구입한 10대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처음에는 진짜로 살을 빼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며, 이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마약인 줄은 몰랐으며,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약이라 안전하다고 믿었고, 이렇게 위험한 마약류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하였다. 이들 청소년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 마약류 범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53명 모두가 식욕억제제 남용 시 나타나는 환각이나 환청 등 마약류의 부작용을 즐기기 위해서 복용을 한 것은 아니고 오로지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구매를 하였으며, 판매한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들은 트위터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검사 없이도 처방을 잘해 준다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선·후배들과 용돈을 벌어 보기로 모의하여, 주소지 주변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을 많이 받아 ‘디에타민’을 모은 후 트위터에 판매 광고를 올리고 방법으로 전국으로 판매하는 범행

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도 이 약을 의사의 처방도 없이 트위터를 통해 구입하여 몰래 먹는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로 부모님이 외출을 하거나 잠을 자는 늦은 밤 시간을 골라 부모의 눈을 피해 자기 방에서 투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거된 대다수 청소년은 구매는 하였으나 먹지 않고 바로 버린 사례가 많았고, 트위터를 통해 재판매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라) 처방·유통 방법

트위터로 살을 빼는 약인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구입한 10대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살을 빼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실제 살을 빼기 위하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을 하여 판매를 하거나 실제로 한두 알 먹어 본 청소년들도 있었고, 대다수 청소년은 살을 빼기 위한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 처방을 받은 기록이 남는 것이 부끄럽고, 살이 찌서 병원에 가서 살을 뺀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스마트폰을 검색 중 알게 된 트위터 채팅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구입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청소년 대다수는 살이 잘 빠진다고 해서 한두 알 먹어 보았으나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입이 마르고, 구토가 나오는 등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청소년은 버리기가 아까워 트위터에 광고를 올려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청소년도 있었다.

트위터를 통해 판매하는 범행을 한 여자 청소년(17세)은 주소지 주변 병·의원을 찾아가 살을 빼기 위하여 왔다고 말하면 대다수 병원에서 특별한 검사도 없이 처방을 받아, 식욕억제제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명 나비약인 ‘디에타민’을 처방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위 청소년은 같은 학교 여자 선·후배 2명(18세, 16세)와 함께 처음에는 살을 빼기 위하여 유튜브, 틱톡, 트위터 등 인터넷이나 SNS에서 정보를 취득한 일명 나비약인 ‘디에타민’을 주소지 주변 병원을 찾아가 처방을 받

아 한두 번 복용을 하였으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두통이 심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하다, 버리기 아까워 트위터에 올려 판매하였으며, 이후 트위터에서 살을 빼기 위하여 ‘디에타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돈을 벌자고 모의한 후, 주소지 주변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전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 받는 방법으로 567정을 모은 후, 트위터에 광고를 올려 1정에 1천 원에 처방받은 것을 5천 원~6천 원을 받고 우체국 택배, 편의점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디에타민’을 트위터에 같은 방법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이들은 트위터로 광고·판매하고 편의점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거된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 살펴보았던 청소년들의 상태는 다행하게도 마약류인 ‘디에타민’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환각 등을 느끼기 위하여 ‘디에타민’을 오·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남용된 마약류 - ‘펜터민’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펜터민’ 약물의 상품명인 ‘디에타민’은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로서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겼다 하여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며, 마약류인 ‘펜터민’이 주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장기적으로 오·남용 시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지정되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이다.

특히, ‘펜터민’은 암페타민 계열의 유사 약물로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분류한다. 시상하부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방출을 증가시켜 식욕을 감소시키고, 교감신경 흥분제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므로 4주 이내로 처방을 한다. 4주 후에 의사의 판단하에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총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디에타민’은 비만 치료에 대해 단기적으로 시용할 것을 승인받은 약물이다. 성인에게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등 적절한 체중 감량 요법에 반응

하지 않고,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kg/m^2 이상,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m^2 이상의 지수가 나타나는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운동과 행동의 수정 및 섭취 칼로리의 제한을 기본으로 시행하는 체중 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이다.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는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 체질량지수 BMI의 측정은 환자의 체중(kg)을 환자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 약은 각성제 계열인 암페타민류와 비교해 보면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암페타민류 등 관련 흥분성(각성제) 약물들은 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약을 남용하게 될 가능성은 체중 감량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의존성 약물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암페타민류 등 관련 약물들은 강한 정신적 의존성과 심각한 사회적 기능 장애와도 연관될 수 있다. 이 약으로 인한 만성 중독증상에는 중증의 피부병, 불면, 자극 과민성, 기능항진, 성격의 변화 등이 있고,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과적 이상이 나타난다(약학 정보원, 2022).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전기준으로 16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에게는 처방이 금지되어 있고, 임신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투여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16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처방은 유의하라는 안전기준이 있는데도 16세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특별한 검사도 없이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판매도 하고 투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병원들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였다.

바) 재발 현황

〈사례 2〉에 사용된 마약류인 ‘디에타민’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환각 등을 느끼기 위하여 ‘디에타민’을 오·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자기 명의로 ‘디에타민’을 처방을 받아 용돈을 벌기 위하여 트위터로 판매를 하다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된 한 여자 청소년(16세)은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트위터 계정을 다 삭제하였고, 연락처도 다 바꾸었으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식욕억제제를 한 알 먹어 보았는데 정말 부작용이 심해 아마도 어떤 청소년도 이 약을 한번 먹어 보면 두 번 다시 먹지 않을 것 같으며 자신도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 청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 등의 재활 방법이 아닌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재활이 가능할 곳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마약류의 특성상 투약한 마약류의 단약 성공 여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재활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류 사범들의 재활 현황은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추적이 어렵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여부

〈사례 2〉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판매와 관련된 청소년들 대다수가 펜타닐 패치 판매·투약 사건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평소 흡연·음주에 대한 교육은 많았으나, 제대로 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식욕억제제가 마약류인 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많은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이에 살이 잘 빠지는 약으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SNS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유튜브나 틱톡 등 SNS에 관련 정보도 넘쳐나고 있어 많은 청소년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행 교내에서 시행하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현실성에 맞도록 더욱 알차게 수정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사례 3 - ADHD 치료제 판매 사건

3) 〈사례 3〉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 판매 청소년 검거

가) 사건 개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공부 잘하는 약’(헬스조선, 2014)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며, 주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트위터 집중검색을 통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치료제인 ‘콘서타OROS서방정’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추적 수사하여 일부 범죄 혐의를 확인하였다.

해당 청소년은 15살 남자 청소년으로 ‘2020년 11월 6일 트위터에 ‘콘서타 안 먹어서 팔아요’, ‘Conserta(18mg+27mg)×5 팝니다’, ‘대리구매, ‘Conserta’, 등의 내용으로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성분의 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에게 4정에 8,1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청소년은 검거되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콘서타OROS서방정’ 4정은 압수되었다. 해당 청소년은 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다가, 용돈을 벌자고 마음을 먹고 평소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많이 보았던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모방하여 트위터에 광고를 올리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 특성 및 범행동기

고1 남학생으로 만 15세이며, ‘2020년도에 힘이 없고 의욕도 없어 우울증이 아닌가 하고 주소지 주변 정신의학과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콘서타OROS서방정’을 처방을 받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소 트위터 등 인터넷과 SNS를 자주 하는 편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다. 부모들과의 관계 역시 좋

은 편으로 부모님은 평소 용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나 청소년은 용돈이 항상 부족한 상태여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례의 청소년은 자기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하다 남은 약을 판매하였고,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판매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처음 판매하다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처방·유통 방법

해당 사건에서 검거된 청소년은 ‘2020년 9월경 몸 상태가 평소와는 다르게 기운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져 우울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어 혼자서 집 주변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ADHD 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콘서트타OROS서방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소 트위터 등 SNS를 자주 사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구하기 위해 ‘대리구매’를 많이 악용하고 있고, ‘콘서트타’가 트위터를 통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음성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방받아 먹다가 남은 ‘콘서트타’를 판매하여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타 안 먹어서 팔아요’, ‘Conserta(18mg+27mg)×5 팝니다’, ‘대리구매, ‘Conserta’, 라는 판매 광고를 올려 이를 검색하여 찾아온 구매자와 채팅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받은 후 우편이나 반값 택배, 편의점 택배 등 구매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배송하여 판매한 것이었다.

라) 남용된 마약류 - ‘메틸페니데이트’

ADHD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의 상품명인 ‘콘서트타OROS서방정’은 6세 이상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뇌 신경세포의 흥분을 전달해주는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진 ‘도파민(dopamine)’과 교감신경계를 자극시켜 집중력을 증가시켜 주는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의 증가를 통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물로 제형에 따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제로 사용된다(약학 정보원, 2022).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남용에 따른 부작용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흔한 부작용 사용자의 10% 이상에서 보고되는 불면증, 두통, 불면증, 구강건조, 식욕감소, 오심 등이 있었고,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사용자의 1~10%에서 보고가 되는 정신신경계 관련 우울, 초조, 불안, 긴장, 신경과민, 어지러움 등과 체중감소와 성욕 감소, 그리고 빈맥, 두근거림 등의 심혈관 관계 부작용이 있다(김준구, 2020).

이번 사건에서 판매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콘서타OROS서방정’은 처방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ADHD 환자들의 주의력 결핍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로 인해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의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일반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용되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서 종종 보고되고 있다(헬스조선, 2014).

‘콘서타OROS서방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중독성과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지정되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이다.

ADHD와 같은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들이 적정한 수준의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면 인지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하게 시켜주나, 적정 수준 이상으로 남용하게 되면 유의미했던 인지적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에 따른 결과도 있듯이 환자들에게는 전문가의 안전한 지도하에 사용되어야 한다(김준구, 2020).

바) 재발 현황

〈사례 3〉의 청소년은 남학생 1명으로 진단받은 ADHD 질환 치료를 위하여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

으며, 또 다른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트위터 계정을 탈퇴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 5 절 사례 분석 결과

연구사례분석 결과 [표 5-3]과 같으며, 수사 착수 경위로는 SNS 검색 및 제보, 112 신고 등에 의한 경찰의 인지 수사로 진행하였으며, 납용한 마약류의 수집 방법으로 트위터 등 SNS 광고 및 판매를 주로 이용하거나, 청소년들 간에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를 한 청소년들의 경우 SNS를 활용한 택배 거래, 물리적 대면 거래, 고속버스 수화물을 활용한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례1은 54명, 사례2는 53명 등 두 사건 모두 50명 이상 다수의 10대 청소년이 관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존의 성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마약류를 납용하는 행태를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납용하는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디에타민’의 경우 여학생 대부분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에 포함된 청소년들 연령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저연령화 위험성을 볼 수 있었다.

투약 장소는 사용 마약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펜타닐 패치’는 공원 및 상가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모텔, 원룸, 학교 교실, 학교 화장실에서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청소년 비행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와 비슷하고, ‘디에타민’은 부모가 외출하거나 잠든 사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약류 범죄의 범행동기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동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비행 친구의 권유, 호기심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는 용돈을 벌기 위하여 ‘디에타민’, ‘콘서타’ 등의 마약류 판매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사전 사후 예방교육과 관련한 분석자료를 살

해보았을 때, 재활 여부는 사례1과 사례2에서 각각 1명의 재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외에 청소년들의 재활 지속 여부와 성공 여부의 결과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학교 내 예방 교육은 흡연이나 음주 예방교육 외에는 받는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례 분석 종합 결과

사례 분석자료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건발생 시기	‘20.6.5.~’21.4.29.	‘22.3.5~’22.4.15	‘20. 11. 6.
수사 착수 경위	112 신고, 제보	트위터 검색, 첩보	트위터 검색
청소년 특성	10대 54명(고,대) 남 39, 여 15 경남거주(창원,김해)	10대 53명(중,고,대) 여 52, 남 1 전국거주(울산,제주제외)	남, 15세, 고1
판매 장소	친구지인과 만나 판매 고속버스 수화물 전달	트위터 거래 후 편의점 택배 이용	트위터 거래 후 편의점 택배 이용
투약 장소	공원·상가 공중화장실 모텔, 원룸, 학교 교실, 화장실	집에서 투약	집에서 투약
처방·유통 방법	병원에서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처방 지인·친구에게 판매	트위터 광고·판매	트위터 광고·판매
범행 동기	친구 권유, 호기심 기분 좋아지기 위해	살을 빼기 위하여 용돈을 벌기 위하여	용돈을 벌기 위해
재활 현황	1명 외 재활 여부 확인 할 수 없음	1명 외 재활 여부 확인 할 수 없음	재활 여부 확인 할 수 없음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여부	흡연·음주교육 받음 마약류 예방교육 받지 못함	흡연·음주교육 받음 마약류 예방교육 받지 못함	흡연·음주교육 받음 마약류 예방교육 받지 못함
마약류	구분: 마약 성분: 펜타닐 용도: 마약성 진통제 품명: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치	구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용도: 식욕억제제 품명: 디에타민	구분:향정신성의약품 성분: 메틸페니데이트 용도: ADHD 치료제 품명: 콘서트사방정

제 6 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사회나 보건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마약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한 형태로 여겨왔다. 따라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보기 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법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만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공태명 등, 201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마약류 범죄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라기보다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사법의 규제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음에도 마약류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SNS 등을 통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으로 일반인 누구나 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등 다변화되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SNS를 통한 쉬운 구매방법, 신종마약류 밀반입 증가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 위주만의 대처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국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예방과 치료에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강력처벌이라는 법적 차원과 재활이라는 의료적 대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대책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 마련에 있어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10대 청소년 시기는 가정이나 학교 및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사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124,895명 중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711명으로 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의 38명에서 ‘2021년은 45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숫자는 가늠해 볼 수가 없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20대, 30대의 마약류 사범의 경우도 56,857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43%를 차지하였다.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크게 우려가 되는 사실이다. 이들이 갑자기 이 시기에 마약류를 접하였다기보다는 마약류의 대표적인 특성인 중독과 내성, 금단증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10대 청소년 시기 때부터 마약류를 접해 왔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오·남용과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출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수, 2022).

사실 효율적인 예방교육이란 것은 새로운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학교보건법’에 청소년들에게 약물남용의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2020년 6월에 마약류를 포함하여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일선 학교 등 현장에서 기존 ‘학교보건법’만 충분히 잘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현정, 2021).

특히,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사전 예방교육 활동만을 통해서라도 그 증가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동시에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

으로 중독된 청소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과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청소년 상대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련 사전 예방교육의 성공 여부는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담당 장학사, 교사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방적 개입은 보호 요인을 증가시키고 개선이 가능한 위험요인은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 상대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담배, 알코올, 흡입제 등과 같이 비록 유해 약물이지만 합법적인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과 불법적인 물질 모두를 포함하여야 하며 (Hawkins J D 등, 2002: 951-976) 이러한 청소년 상대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그리고 부모, 교사, 의사, 약사, 공무원,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수준에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어야 한다(Nebhinani N 등, 2013: 15-19).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발표한 ‘2022년 ‘마약 퇴치의 날’ 캠페인 주제는 “Addressing drug challenges in health and humanitarian crises(약물로 인한 보건 및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이고 그 실천 방법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Know the facts(사실 인식)”, “Only share information from verified sources(검증된 출처의 정보만 공유)”라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국립약물연구소(NIDA)는 마약류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기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교육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김현정, 2022).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공급차단 및 수요억제’ 정책을 유지하며 마약류 중독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연구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해마

다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자의 수를 낮추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모든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모든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마약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 정보를 학교 내 예방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정책이자 중독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김현정, 2022).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사례 3건의 실태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으로 검거된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 패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등이 비록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팔고 있지만, 위험한 마약류이며, SNS 등을 통해서 함부로 판매하거나 전문가의 처방없이 복용을 하면 마약류 범법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더라면 108명에 이르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쉽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학교 내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심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관리자와 담당자, 교사들을 상대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정규 연수 과정 교과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들이 마약류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함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내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서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

히,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같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의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일선 현장에는 이러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등 일선 업무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예방강사 양성을 위한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여,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하여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활용을 한다면, 업무 중 일선 현장에서 느꼈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전달 할 수 있고, 현재 마약류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는 고민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교사들의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서 실제로 경남교육청(경남교육청 보도자료, 2022)과 울산교육청(울산교육청 보도자료, 202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한 ‘청소년 펜타닐 패치 판매·투약 사건’ 발생 이후 관내 교사들을 상대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강화 연수를 시행하여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전면 시행을 해도 좋고, 현재 상황에도 딱 맞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에 사용할 교재의 제작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의 특성과 현재의 시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및 SNS 등과 가상통화의 결합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행위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잘못된 마약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류를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방식인 유튜브, 틱톡, 카드 뉴스, 웹툰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예전에 발간된 음주나 흡연교육 위주로 구성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교재의 내용을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한 결과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최신의 교재로 예

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이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다음은 성공적인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 마약류 사범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에서 살펴보면 20대의 비율은 ‘2012년도 8.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1%에 이르고 있고, 30대는 26.9%에서 25.4%로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검거 인원은 증가하였다.

‘2021년도의 경우만 살펴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 16,153명 중 20대 마약류 사범은 5,077명으로 31.4%, 30대 마약류 사범은 4,096명으로 25.4%를 차지하여 20~30대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 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경우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2020년은 30대, ‘2021년에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까지 가장 많았던 40대 마약류 사범의 수를 ‘2019년에 30대가 앞지르고, ‘2021년에는 20대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김현정, 2022) 이들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영역에서의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현행 우리나라에는 20대와 30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들 20~30대들이 이전 청소년 시기에 마약류 중독 관련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생활영역인 직장, 학교, 커뮤니티, 동호회,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과 마약류 중독 관련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전영실 등, 2022).

그러나 문제점은 현행 제도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 신병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

고, 전역 후에는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정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시켜 시행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각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직장교육이나 교양강좌 등에 마약류에 대한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안타깝게 마약류 범법자가 된 최근 사례 등을 요약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다든지, 전문 마약류 예방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각 생활영역 리더와 관리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최근 검거 마약류 사범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식욕억제제나,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여성 마약류 사범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에는 남성들과는 달리 가정주부 등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학이나 교환학생, 배낭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반드시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 등 세계 각 대륙의 중요한 나라들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합법화하였으나 최근 이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도 외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남용사례의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제대로 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본 논문의 사례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 연구자가 몇몇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과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의 이해”라는 주제로 예방 교육 관련 특강을 하면서 확인해 본바,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시절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두가 최근의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흡연이나 음주 위주의 유해 약물 예방 교육만 받았지, 이전 학창 시절에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아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마약은 그냥 몸에 나쁜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우리 사회가 학교 내에서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위험한 마약이라는 정보를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잘못된 교육방식에 의해 접근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인터넷과 SNS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마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마약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 사이에 무방비로 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각 대학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나 학기 중 특강 형식의 강의 또는 교양과목으로서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마약류 중독 관련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출발하는 학생들은 외국 생활에 필요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마일리지 점수 형식이나 각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반드시 수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에게 마약류 중독과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예방교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 분석에서도 검거된 청소년 중 대다수는 부모들과의 대화가 부족하였고, 부모 자신도 이전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내 주변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최근 우리 사회에 아무리 마약 사건들이 발생해도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고, 내 자식도 마약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믿음에서 오는 무관심에서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나 인근 학교에 진출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마약류 등 약물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업하여 희망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최신 마약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 일부 투입을 한다면 최근 마약류 예방 교육 강사가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실제로 경상남도교육청(경남 교육청 보도자료, 2022)에서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중 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4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예방 학부모 서포터즈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경남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개설하여 주 5일 30시간 동안 마약류, 음주, 흡연, 청소년 심리, 자녀와의 대화법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오·남용하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약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들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수료한 학부모들에게 경상남도교육감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 후, 이들을 경남 관내 외판지역에 있어 마약류 등 유해약물 교육 등에 있어 소외를 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시행하여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학부모들을 상대로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아주 긍정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번 경남교육청의 프로그램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으로 확산되어 시행을 할 수 있다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한 마약류 범죄 사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 연구를 위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자의 심리에 접근하고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경찰청, 통계청, 대검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와 연구자가 경상남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근무하면서 직접 담당하였던 10대 청소년들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을, 엄한 처벌보다는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을 우선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사전 예방과 세심한 치료·재활

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통합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교육, 치료, 재활, 정책 등 마약류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기관, 민간단체,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과 마약류 범죄를 검거하고 조사하는 경찰, 검찰, 마약류 사범들을 교정하는 교정기관 등 마약류와 관련이 있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 연구는 앞으로 국내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마약류로 인한 중독자들의 원인과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교육과 신속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문헌 연구만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과 관련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문 치료가, 상담가, 경찰공무원 특히, 마약 수사 관련 공무원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검찰, 교정공무원,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한 청소년 마약범죄 관련 정책 제언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마약류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독예방상담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경찰학, 중독 관련 의리학 등 융복합적인 차원에서 양적, 질적연구가 수행되어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실체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및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재활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연속간행물

공태명, 최응렬. (2012).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 9-40.

김경성. (2018). 에릭슨의 성격발달단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 도덕교육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 2012 개정 북한 「사회주의 도덕교과서(초급중학교 1학년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성감성교육학회 교육포럼』, 2018(1), 31-49

김남식. (2000). 약물남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 『상담과 선교』, 8(4), 1228-1344

김성중. (2014). 청소년 환각물질흡입사범 실태분석 및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4(1), 1-21.

김소야자, 공성숙, 김명아. (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9(3), 344-356.

김학신. (2012). 마약류 관리법상 청소년의 마약범죄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법학논총』, 36(1), 469-505.

김평식, 이재화. (2018). 여성의 생리적 증후군(PMS)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1), 19-39.

김평식, 이상인. (2017). 가정폭력범죄 여성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피해자 과정.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3), 25-53.

김현수, 김현실.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 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박성수. (2011).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교정연구』, 51,

191-227.

박성수. (2017).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4), 43-62.

박진실. (2015).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연구. 『法學論文集』, 39(2), 201-236.

박영숙. (2006). 청소년약물남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3, 165-184

박종철. (2013).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 따른 학교폭력의 개선방안 연구. 『자치경찰연구』, 6(3), 62-87.

신동엽. (2014). 청소년 약물남용에 따른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연구지』, 8(4), 311.

신동준. (2018). 범죄학 이론의 이해와 분석. 『한국범죄학』, 12(2) : 73-97

신송연, 장현석. (2013).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통제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7(2), 3-33.

신운정, 최은진. (2004). 청소년의 향정신성 유해약물 중독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272.

우룡. (2004). 청소년 약물남용과 마약류사범 동향. 『청소년보호지도연구』, 5, 21-36.

유찬우, 김근향. (2014). 고등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음주동기 및 흡연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2), 43-77.

윤민우. (2012). 부정적인 자아감, 자기 효능감이 마약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1(1), 3-26.

이민희, 임지연, 안지선. (2004).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6, 1-418.

- 이성식. (2000). 청소년범죄의 동기로서 재미와 스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53-80.
- 이장현, 우룡, 조혜경. (2004).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153.
- 이장현. (2004). 청소년범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대책. 『청소년보호지도연구』, 6, 7-26.
- 이정혁, 강동욱. (2018).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소년보호연구』, 31(4), 199-236.
- 조아미. (2011). 비행친구와 청소년 가출의 관계에서 약물사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79-95.
- 조학래. (2001).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1), 177-192.
-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관점에 관한 소고 (小考) 305. 과제 연구 I (연구보고 12-R03). 『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서아. (2018). 청소년의 약물중독 실태 및 심리지원 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2), 93-115.
- 최영신. (2004).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의 추이 분석: 청소년 문화와 정책적 의미. 『청소년학연구』, 11(3) : 1-21
- 최재용, 한보영, 이운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1) : 35-65

2) 비연속간행물

- 강차연, 손승아, 안경숙, 윤지영. (2013). 『청소년 심리 및 상담』. 파주: 교문사.
- 김경빈. (1990). 『입원된 정신활성물질 남용자의 사회 정신의학적 특징』.

제30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김동민, 권해주, 이소영, 이희우. (200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청소년 삶과 고민-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연구소,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동일, 김은하, 김은향, 김형수, 박승민, 박중규, 신을진, 이명경, 이영선, 이원이, 이은아. 이제경, 정여주, 최수미, 최은영. (2014). 『청소년 상담학 개론』. 서울: 학지사.

김란중. (2017).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사범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수 등 3명. (2006). 『생물심리학』.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김성이 등. (1989).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은숙. (1999).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대처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구. (2020).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Methylphenidate 사용패턴 분석”.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숙, 김창대, 유성경, 지승희. (2003). 『청소년 상담의 기초』.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혜숙 등. (2002).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상담 실천이론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헌수. (2000). 『약물남용 청소년의 환경, 역동적 분석』. 서울: 중앙의대지.

김창대, 이정운, 이영선, 남상인(1994). 『청소년 문제 유형 분류체계』.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모경환, 이미리, 이봉민. (2021). 『청소년문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민성길. (1998). 『약물남용』. 서울: 중앙문화사.
- 민성길. (1998). 『약물남용 원인, 증상 및 치료』. 서울: 중앙문화사.
- 박경애, 김은영. (1999). 『청소년의 우울 실태분석』.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 35.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상기 등. (1999). 『형사정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규. (2004). 『마약류 의존자의 심리적 특성』. 서울: 한국상담학회.
- 박진숙. (2013). “청소년 비행충동의 창조적 변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형의. (2014).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수연 등. (2013).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손경애. (1992).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손호중. (1992).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광선. (2002). “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경. (1997). “약물남용청소년 부모들의 공동의존에 대한 개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인. (2021). "노인수형자의 교정프로그램 참여와 재범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영철. (200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기덕. (2002). “효율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윤진선. (2006). 『위기청소년 지

- 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흥희. (2004).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정. (2001). “약물남용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재. (1989). “약물남용 청소년의 정신의 역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로. (2000). 『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서울: 문음사.
- 이윤로. (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서울: 문음사.
- 이상현. (1992).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미경, 정태연, 김근영. (2014). 『발달심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장미경, 최수미. (2014). 『청소년심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성화, 구승신, 정옥희, 이주연, 신성철, 정희정. (2012). 『청소년 심리 및 상담』. 파주: 정민사.
- 장혜수. (2000).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적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영실·김유근. (2022). 『10대·20대 마약류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22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 정수경. (1996).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적 접근을 위한 초기개입 고찰』.
서울: 연세사회복지연구소.
-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2009). 『청소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조성남, 강향숙, 김선민, 김주은, 문봉규, 박상규, 신성만. (2021).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서울: 학지사.

주경필, 김진호. (2021). 『청소년 육성제도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진영호. (2000). 『필로폰 환자의 MMPI 양상』. 서울: 중독정신의학.

최재윤. (2011).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경수, 송대영, 이미나. (1994). 『현대사회의 제문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윤미, 박희경, 손영숙, 정명숙, 최해림, 백화정, 강순화, 이은경, 이규미, 이은순, 정현희. (1998). 『현대 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최은영, 양종국, 김영근, 이윤희, 김현민. (2014). 『청소년 비행 및 약물중독 상담』. 서울: 학지사.

한화진. (2011). “중학교 여학생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요인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혜숙, 장미경. (2021). 『청소년상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상철, 이형득. (1995), 『인간이해와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한준상. (1996). 『청소년문제』.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한부식. (2016).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부산지역 NA모임을 중심으로”.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윤경. (2008).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비연속간행물의 부분

경상남도교육청. (2021). 유해약물(마약류) 예방교육 자료.

경찰수사연수원. (2022). 마약류범죄 수사과정 교재.

경찰청. (2021). 마약류 관계 법령 해설.

경찰청. (2022). 내부자료.

김현정. (2022). 실무에서 느끼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

대검찰청. (2012~2022). 『마약류 범죄백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2022). 2022년 마약퇴치의날 기념 심포지엄자료.

박성수. (2022). 청소년 마약류 중독과 예방대책. 2022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심포지엄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결과.

_____. (1998).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결과.

법제처.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법령 자료집 안내서 지침.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https://www.mfds.go.kr/brd/m_218/list.do?page=1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최종검색일: 2022.12.15.)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733>.

약학정보원. (2022). 홈페이지 의약품 상세검색.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2015031200005. (최종검색일: 2022.12.15.)

JTBC. “학교 건물까지 파고든 마약. 화장실에서도 펜타닐 흡입”.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6450. (최종검색일: 2022.12.15)

연합뉴스TV. “마약성 진통제 상습 투약 10대 무더기 검거”.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20016100641?did=1825m>. (최종검색일: 2022.12.15.).

KBS. “마약류 식욕억제제, SNS로 사고 판 10대 무더기 적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8399&ref=A>. (최종검색일: 2022.12.15.)

MBC.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판매·구입한 10대 무더기 검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9212_35744.html. (최종검색일: 2022.12.15.).

헤럴드경제. “학생 99%가 받는다지만...‘예방교육 비웃는’ 청소년 마약”.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7000340>. (최종검색일: 2022.12.15.).

헬스조선. “ADHD 치료제'로 집중력 높이려다 돌연사할 수도...”.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4030401785. (최종 검색일: 2022.12.15.)

2. 국외문헌

Aquino, J., & Russel, D. W. (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80–490.

Atchely, R.C. (1975). Adjustment to loss of job at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6(1).

Atchley, R.C. (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1(1)(Part 1).

Atchley, R. C. and Barusch, A. S., (2004). *Social Forces and Aging: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10th ed, (Australia) Canada. Mexico. Singapore. Spain. U. K.S.: Wadsworth.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lkind, D. (1978). *The child's reality: Three developmental themes*, Hillsdale, NJ: Erlbaum.
- Erickson, E. H. (1968).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lavel, J. H. (1970), Developmental studies of mediated memory. In H. W. Reese & L. P. Lipsitt (Ed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5. New York: Academic Press.
- Hawkins J D, Catalano R F, Arthur M W. (2002). Promoting science-based prevention in communities *Addict Behav*, 27(6): 951-976
- Jaffe, M. L. (1999).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Kratcoski, P. C. & Kratcoski, L. D. (2004). *Juvenile Delinquency* (5th ed.). prentice-hall.
- Marcia, J. (1980). Identity in adolescent.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rcia, J. (1994). The empirical study of ego identity. In H. A. Bosma., T. L. G. Graafsma, H. D. Grotebanc, & D. J DeLivita (Eds.) *The Identity and Development*. Newbury Park, CA: Sage.
- Marcia, J.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 The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orse, C.,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 Nebhinani N, Mamta, Misra A. K, Seema. (2013). Substance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in school and college students German J Psychiatry, 16: 15-19
- Paris, S. G., & Liindauer. B. K. (1982),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skills during childhood. In B. Wolman(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avin-Williams, R. C., & Berndt, T. J. (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 Storker, A. and Swadi H. (1990),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in drug abusing adolesc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5(3): 293-297.
- Hirschi ,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A Study on Cases of Juvenile Drug Crime

Kim, Dae-Gyu

Major in Addictive Prevention &
Counseling

Dept. of Drug & Alcohol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Drugs have been recognized as a thing used only by certain classes of people in the past. However, it has recently spread to various social classes in Korea, from adults such as office workers and homemakers to teenagers (under 19). The social risk of drug crimes caused by addiction, a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narcotics, and its spreading speed shows that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drug abuse in Korea are very seriou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eenagers, who are deemed to be 'the future of our country', are committing drug crimes without any sense of guilt tells us that research on 'adolescent drug crime' is positively necessary.

The statistics from the 「White Paper for Drug Crime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from '2012 to '2021 show that among the total 16,153 drug offenders arrested in Korea in '2021, 450 were teenagers, which accounted for 2.8%, the highest ever. It has increased 11 times from 41 in '2011, 10 years ago.

To study countermeasures against teenage drug crim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of drug crimes involving teenagers, analyze their causes, and suggest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them. This research diagnosed the actual conditions of drug crimes by adolescents focusing on the theoretical reviews to understand teenagers,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mprehensive fact-finding survey on youth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owever,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shows that teenage drug-related crime is not quantitatively large compared to the total drug crimes and maintain a certain level, the unreportedness and danger of drug crime urge for countermeasures against youth drug crime.

However, for adolescent drug crimes, the purpose should be prevention rather than a crackdown,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rather than punishment. The management must be conducted at home, school, community, and governmental levels to prevent teenage drug crime and to treat and rehabilitate them, and this management becomes more effective when integrated. In other words, families, schools, religious institutions, private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agencies, correctional institutions, police, prosecutors, etc., should all actively prevent drug crimes among adolescents and work together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abusing teenagers.

Accordingly, this study has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medical narcotics, psychotropic drugs, and new drugs, which accompanies more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hallucinations, as they have been greatly abused among teenagers these days.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focused on the drugs prevalent in the past and related criminal cases, and on inhalants containing chemical substances such as bonds, while lacking research on the new drugs abused these days.

Therefore, among the cases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Drug task force, Metro investigation team, in Gyeongsangnamdo Police Agency,

from '2020 to '2022, in which youths were involved, this study has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that were widely broadcasted in various media at the time after Gyeongnam Police Agency made a press release and distributed it to the media since they fall under the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ir type and method to the public in order to prevent the similar crime to occur" or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ublic about an incident that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interest or social order" that are able to be open to the public as exceptions according to the "Matters concerning the public not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JTBC, 2021; Yonhap News Agency TV, 2021; KBS, 2022; MBC, 2022)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ase in the way of observ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earcher, not the position of the investigator who was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at the time.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or investigation-related information known in the process of observation can be exposed, this study was written centered around the information publicly reported in the media after the case was concluded, and was written with enough care to prevent the personal information or investigation related information from exposure.

As a survey method, a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focusing on 19 adolescents with high fidelity of interview data among 108 adolescents involved in the three cases, and interview data of 49 adolescents were used for analysis in relation to symptoms after drug use. As a framework for case study analysis, it was classified into four areas: case summary, suspect characteristics, crime characteristics, and pre- and post-management. In detail, the case summary includes the date of arrest, the duration of the crime, the histor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suspect characteristics contain the number of teenagers, and sex, age, academic history, and region are investigated as demographic-sociological features of the suspect. The motive for the crime, the place of

administration, the type of narcotics, and the method of prescription and distribution were examined as the crime characteristics. Lastly, the analysis of drug-related pre-management, such as drug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and post-management, such as rehabilitation status, were reviewed.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analysis showed that the investigation was initiated after police recognized the crime through the social media search and reporting, 112 reports, etc. The drug was distributed through social media advertisement and CVS delivery service. Also, teenagers share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messages. In Case 1 and Case 2, it was found that more than 50 adolescents were involved, and they showed gender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ugs they use. In particular, 'Dietamin,' an appetite suppressant that was known to be effective in losing weight, is used mostly by female students. Also, the place of dosage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ugs. A narcotic painkiller, 'The fentanyl patch' was found to be used in the place where juvenile delinquency usually occurs, and 'Dietamine' was found to be mainly used at home while parents went out or asleep. The motive of the crime appears to be similar to the general motive of juvenile delinquency. The analysis data related to pre- and post-prevention education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confirm whether rehabilitation has been conducted, and most of the teenagers received no preventio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study is to present effective and practical preventive measures by analyzing drug crime cases among adolescents. The case analysis showed that drug addiction and drug-related crimes among teenagers are rapidly increasing. However, since prevention education for teenagers in schools mainly focuses on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as shown in this case analysis, it cannot be of help to teenagers.

While the management of teenage crimes and juvenile delinquency

used to focus on punishment and treatment in the past, the philosophy of quick intervention and prevention of drug crimes and delinquency in the early stage has been emphasized in recent days. (Choi et al., 2014; Shin, 2014) In other words, now problems caused by the abuse of harmful drugs such as narcotics by teenagers must be responded to with a preventive strategy rather than ex post facto.

In particular, prevention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drugs among teenagers. When considering that drug addiction is a chronic disease that requires life-long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potential risk factors by strengthening drug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 and for young people who have never received that education before they become addicted.

From now on, the practicalized in-school narcotic prevention education will convey information on narcotic drugs, so teenagers can judge the risk of drug abuse by themselves, preventing them from falling into drug addiction. Based on this, they can also share accurate information with friends, reducing the occurrence of unfortunate youth drug crimes and drug addiction caused by curiosity and ignorance about drugs.

【Key Word】 1 Drug Crime of Juvenile, Drug Abuse of Juvenile,
Prevention Education of Drug for Juvenile,
Treatment · Rehabilitation of Drug